DEC 7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86 1981년12월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December 3, 1981

◇15개월된 에밀리·오스틴이 1일 맥도날드의 크리스마스 선물주기 운동기념식에서 산타할아버지의 아기사슴을 토닥거리고 있다. 이 운동을 기획한 관계자는 올해 메트로 거주 15,000 극빈아동들에게 선물이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 연방의원들 연금특혜말썽

## 4%의 이자율, 시중의 고금리는 아랑곳

(오타와) 캐나다 시민들이 근20%에 가까운 이자율에 시달리는동안 연방의회의원들은 겨우4%이자율의 특혜를 누리고있다.

지난11월12일 정부는 이미 내년도 평균이자율을19%로 책정, 매 분기마다 바꾸기로 했으나 이자율4% 의원연금계획은 특별조치키로 했다.

의회는 이미 지난여름그들의 봉급인상및 연금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종전의 의원연금 계획안에 의하면 봉급의 5%를적립, 경력 15년 이상의 의원에게 25년후부터 봉급의 75%까지 지급할수 있었다.

1일 알려진 새 계획안에서는 내년부터 의원들은봉급의 10%를 적립하고 과거의 의원경력은 소급하여 과거봉급의 5%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2.5%를 합해 7.5%만 추가지불하면 15년 경력으로 자기최고봉급의 75%까지 받을수 있다.

4%의 특혜이자가 적용되는것은 바로 이분야이다. 의원들이구계획안에 의해 적립하던 금액과 신연금안의 차액은 오직 4%의 이자만 추가, 지불하면된다.

재무성당국자들은 이 금리가 시중금리와 차이는있으나 연금계획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이같은 이자가 적용된다고 변명했다.

한관리는 "이금리는 의회에서 과거부터 적용해왔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른다고 불평했다.

신연금안이 의원 들에게 적용되는 특혜는 이것뿐이 아니다. 과거의 봉급의10%에다 2.5%만 추가하면 경력분을 늘릴 수 있어 그동안의 인프레이션율과 비교할 때 파격적인 특혜를 받고 있다.

즉 현재 연봉 43,800달러를 받는 의원들은 과거의 봉급 12,000달러 또는 18,000달러에 준하는 연금공제를 하게 된다.

전 보수당의원 폴·맥크로산씨는 "이것은 법이전의 양심의 문제다. 시민들의 허리띠는 졸라매면서그들자신은 느긋하게 풀어놓고 있다."고 심하게 힐난했다.

# 알렌의 $1000 수회사건

## 미법무성, 범죄행위 성립안돼

(워싱톤) 미 법무성은지난 29일 사임한 리차드·일렌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의 수회사건을 수사한결과 일본잡지회사로부터 받은 천달러는 처리과정에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면서, 또 다른 2개의 손목시계 수수사건은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한 법무성 성명서에는 지난 10일간의일렌보좌관의 진술내용과 손목시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할지는 확실치 않다.

일렌보좌관은 금년초 리건대통령 취임직후 영부인낸시여사와 일본잡지 와의 인터뷰를 주선해준 후 천달러를 받은 것으로 일려졌다.

일렌은 29일 사건조사를 귀해 백악관 자리를 잠정적으로 사임했다.

법무성성명은 그 동안의 기록을 조사했으나 아무런 범죄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 "이돈이 일렌 개인을 위해 쓰여졌다는 아무런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렌은 법무성성명에 대해 "매우 만족하다며 " 백악관으로 돌아갈 시기는백악관 동료들이 결정할 문제다"고 말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 구TTC티켓 1월말까지 사용

12월중 TTC티켓을시는 사람들은 내년1월3일부터 요금이 인상될때 약간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오르기전 티켓을 사두면1월31일까지 5센트를 더내지않고 탈 수있기때문이다.

종전에는 요금이 인상된 후 2주일까지만5센트 를 더 내지 않고 오르기전 티켓을 사용할 수 있었다.

# 젊은세대 주택장만 힘들어

## 연방이자율 정책 무책임

연방정부의 이자율 정책은 젊은 세대들의 집장만 꿈을 산산히 부셔뜨렸다고 토론토 주택업자협회회장이 말했다.

피터·랭거회장은 1일 가진 연설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내집을 장만하, 것이캐네디언 생활방식의 중요부분을 차지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81년의경제현상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랭거회장은 "지난 11월 12일에케큰장관이 발표한 연방예산은 높은 이자율문제에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특히 고이자율로 주택을 사거나 렌트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에 등한허 한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랭거회장은 캐나다 경제는 절대적으로 주택건설제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1,000동 건설은 년간 2,210개의 직업을 창출하며,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산업 즉 가구 산업 및 가정용기 산업분야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1,600여개의 직업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평화군 시나이반도주둔 베긴수상 반대

메나헴 베긴수상은 25일 영국,프랑스,이태리,화란군으로 조직된 평화군을 시나이 반도에 주둔시키는데 찬성할수 없다고 주 이스라엘 미국대사에게 전했다.

베긴수상은 동 유럽국가들이 PLO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헤이그 미 국무장관은 25일 주미이스라엘대사를 만나 이스라엘이 유럽평화군 주둔을 받아들일것을 설득했으나 백악관 관리들은 중동평화를 위한 회의에 PLO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럽국가들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수락하지 않을것으로 우려를 표했다.

## 統一敎지도자 2명 法廷모독죄를 부과

(샌프란시스코-UPI) 문선명씨가 이끄는 통일교의 두 지도자가 뉴질랜드 타란키출신 메리·리·홀(22세)여인을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았다고 법정모독죄 죄목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게됐다.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아이라 브라운판사는 25일 통일교 지도자 모세·둘스트씨와 북가주 통일교 책임자 매튜·모리슨씨에게 홀여인을 법정에 출두시키라는 법원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정모독죄를 부과했다.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 "금값 계속 내린다"

국제시장의 금값이 온스당 450달러선에 있었던 10월중순 「인터내셔널 머니라인」이라는 뉴스 레터의 발행인 줄리안 스나이더씨(52세)는 금값이 곧 내릴터이므로 팔아버리라고 권했다.

1만7천명의 이 뉴스 레터의 독자들은 스나이더씨가 80년 8월 금값이 720달러까지 오름세를 보였을때도 적중시켰는데 18일 금값이 4백달러를 하회한 것을 미리 적중시킨것에 찬탄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스나이더씨는 아직도 1년간은 금값이 더 내릴것으로 보며 6개월내에 270달러 내지 310달러선이 될것이라고 장담한다. 그 이유라는 것은 간단하다.

첫째 이자율이 계속 내리는데 금값은 이자율과 항상 책지운돗이 움직인다. 게다가 경기가 침체되어 이런 상황에서 금값이 한순간 급상승할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또하나의 요인은 소련이 금을 계속 덤핑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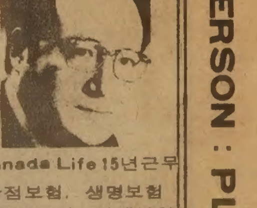
소련은 식량을 사들이기 위해 금을 팔아야 하는데 작년에 150톤을 팔은 것보다 50톤을 더팔게 된다. 그러면 한차례 금값 하락 파동이 생긴후 가격이 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제사태가 불안할때 이 불안감을 표시하는 지수처럼 금값이 오른다. 그러나 지금 폴랜드 위기나 이집트-이락의 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르기는 커녕 내려가고 있다.

또한 곡물과 같은 다른 투자성 현물 가격과도 금값은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투자성 현물 가격은 1934년 경기침체 이후 6.7배가 올랐다. 당시 금값은 35달러였으므로 그것을 6.7배로 올린다면 270달러가 채 못된다. 그러니 금값이 현실화된다면 270달러선이 될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과연 스나이더씨의 예고가 어떻게 맞아들어갈지 투자가가 아니더라도 흥미있는 일이다.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 "이철수 석방을 돕자"

## 21일 뉴욕서 모금바자 열려

(뉴욕지사)

이철수씨 석방기금마련 경품바자회가 21일 만하탄 다운타운 컴뮤니티 TV에서 교포학생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1천5백달러의 수익금을 올렸다.

뉴욕지부 이철수 석방위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시아 여성연합, 아시아여성기구,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기금, NYU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회 등의 후원으로 주최한 이번 경품바자회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각계에서 기부한 석방운동 사진, T셔츠, 책자등이 경매에 부쳐졌으며 경매전후에는 중국인 찰리·진씨와 일본인 크리스·이찌마세가 기타반주에 맞춰 이철수씨의 역경을 울어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철수씨는 지난 73년 6월3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입이탁이란 중국인 갱이 살해되자 이에 대한 누명을 쓰고 캘리포니아주 트레이시시의 도이얼 교도소(DVI)에 수감되었었다.

이철수씨는 77년 10월8일 DVI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이며 신나치당원인 모리슨·니햄이란 상습범이 시비를 걸자 자체방어를 하다가 니햄의 손에 있던 단검으로 니햄에게 치명상을 안겨줘 80년 5월14일 1급살인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차이나타운갱 살인범에 대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으며 79년10월에는 이철수씨의 첫번째 투옥이 헌법에 명시된 「인신보호권」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철수씨는 현재 DVI에서 저지른 사건에 대한 사형선고의 제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2심 판결이 내리기 전에 첫번째 구속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면 무죄방면이 가능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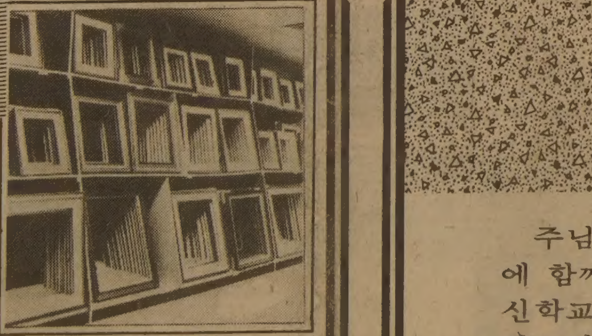
각지의 이철수 석방위원회는 이철수씨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담당검사에게 이철수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편지와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운동을 전개중에 있다.

▲이철수씨 주소
PO BOXB-51845
TAMAL, CALIF. 94974-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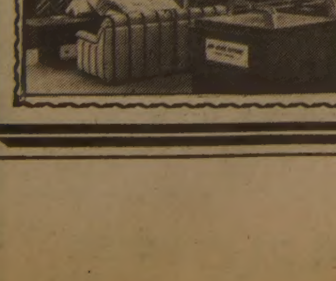
▲담당검사주소
MR.ARLO SMITH
HALL OF JUSTICE
850BRYANT ST.
SAN FRANCISCO, CALIF. 94103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35 BLOOR ST. W(한국관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 HOUSE



● 사진 액자 전문
● 동양화 취급
● 유화, 초상화
● CUSTOM PAINTING
● CLEANING & RESTORING



1286 WESTON RD
(에그린튼 ×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 환

# 초대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어떤모양으로든지 교민 여러분들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토론토 한인 성서신학교"에서는 제3회 졸업식을 아래와같이 거행코자 하오니 많이 왕림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일 시 : 1981년12월5일(土) 오후7시30분부터
장 소 : 한인장로교회당
연락처 : 535-6864

토론토 한인성서신학원
원장 박희민 드림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 토론토 최하위 면치못해
## 에드먼턴·퀘벡, 1.2위로 부상

최근 6게임에 한번도이기지 못했던 토론토 메이플·립스는 지난 29일 디트로이트 윙스와의 홈어웨이 경기에서 6:3으로 승리, 재기의 발돋움을 했다. 립스의 지난 7게임 전적은 1승3무3패이나 그 동안의 부진한 경기로 종합전적 6승6무 12패로 노리스디비전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플·립스는이번에 같은 노리스디비전에 속한 디트로이트윙스를 물리침으로 승점 18점(승:2점, 무승부:1점)으로 19점의 디트로이트를 바짝뒤쫓고있다. 예선리그 약3/1을 마친 21개팀의 종합순위에서 립스는 18위에 머물고 있다. 1위는 에드먼턴오일러, 웨인·그레츠키가 리드하는 젊은선수로만 구성, 경이에 찬 게임을운영하고있다.

에드먼턴은 26게임에서 17승3무6패로 승점 37점을 올려 2위인 퀘벡·노르딕(32점)를 무려5점 이나 앞섰다.

개인득점 부문에서 그레츠키는 현재 31골과 33어씨스토로 64점을올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레츠키가 이같은 추세로 나가면 95골에 197득점이 가능 NHL신기록이 예상된다. '80~'81시즌에서 그레츠키는 55골에 164득점으로 개인득점1위를 차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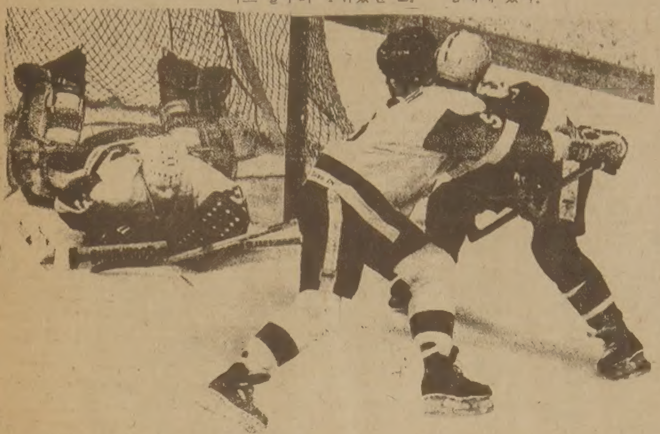
금년시즌 순위가 크게뒤바뀐 팀들은 세인트·루 이스·블루, L.A.킹스, 에드먼턴·오일러, 퀴벡·노르딕이다. 작년 예선리그 에서 2위를 차지한 세인트·루이스·블루와 4위였던 L.A.킹스는 각각 14위 15위로 고전하고있으며 작년14위였던 에드먼턴·오일러와 11위였던 퀘벡·노르딕 은 비약적으로 부상, 뉴욕 아일랜더스(32점, 3위), 버팔로·세이버(31점 4위) 미네소타·노스스타(31점5위) 등 강팀들을 누르고 각 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최하위를 기록했던 위니펙·젯(24점 12위)도 선전분투 현재 중위권에 들고있다.

다른 캐나다하키팀 들이 이번 시즌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데 비해 토론토메이플·립스만 작년과 같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못하고 있다. 그러나 메이플·립스는 디트로이트윙스를 꺾기전 최근 강팀 뉴욕·아일랜더스와 3:3, 버팔로·세이버와 4:4로 비겨 오름세에 있다.

립스는 노리스디비전 에서 최소4위를 차지해야 Play-off에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 2팀을 제쳐야 하나 현추세로 보아 힘에 겨웁다.

승점이 1점 뒤진 디트로이트는 가능하다고 하나 위니펙(3위)과 센트 루이스(4위) 추월하기가 만만치 않다.

립스는 오는 5일 메이플립스가든에서 워싱톤과의 홈게임을 벌인다.



◇디트로이트 골리 코라도·미칼레프가 엎어져 퍽을 감싸고 있으나 메이플·립스의 윌프·페이망이 계속 쑤석거리고 있다. 윙의 수비 그렉·스미스는 전력을 다해 페이망을 막고있다. 이날 페이망은 각각 1득점과 1어시스트를 립스는 윙스를 6-3으로 이겼다.

## 법 완화로 중절율 감소
### 미혼·초임 경우가 많아

1969년 8월26일 캐나다의 임신중절법이 완화된이후 10년이 지난 80년 현재 캐나다의 연간 임신중절시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캐나다 통계국이밝힌 바에 따르면 80년도 캐나다 전국 265개 병원에서 행해진 임신중절건수는 65,855건으로 79년도의 65,135 건에 비해 1% 만(720건)이 늘은 셈이다.

69년 캐나다의 임신중절법에 개정되기전 합법적인 공유산의 유일한 근거는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최소한 3명의 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허가를 거친 경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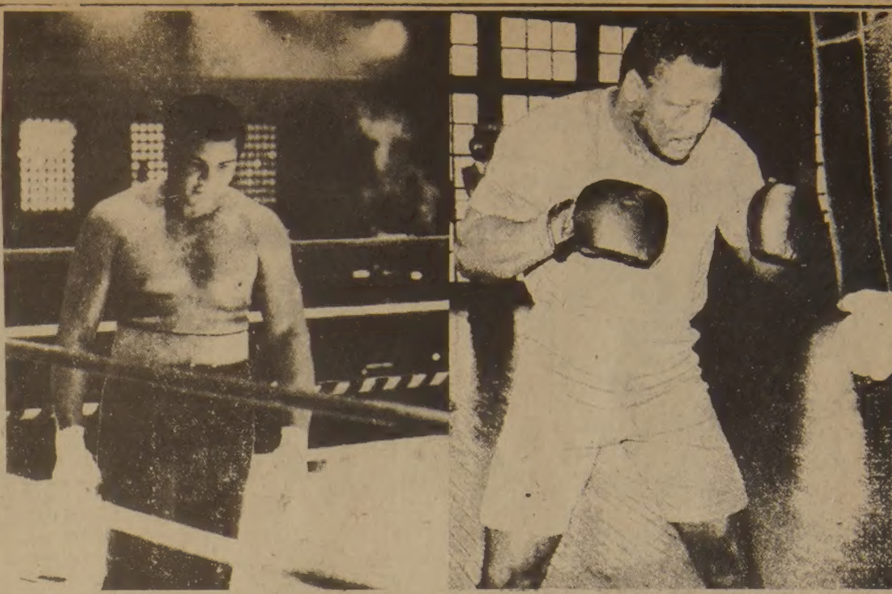
캐나다는 70년도에11,200건, 71년도에 30,049건,그리고 79년에는 65,135건의 인공유산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 미국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와 같아 임신중절법이 완화된 직후 2, 3년간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인것이다.

79년도 현재 캐나다의임신중절률은 17.8%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가장 임신중절율이 낮은 나라로 꼽히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의 52.5%, 미국의 43.5%, 스웨덴의 35.8%이다.

또한 캐나다 여성중 임신중절을 하는 여성층의특징은 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의 경우, 첫번 임신의경우가 늘어났다.

## FBI 要員 부인 납치
### 10대武裝少女 4명

〈노스리지-CNS〉 무장한 4명의 10대소녀들이 FBI수사요원의 부인을 납치한후 돈을 강탈하고 옷을 벗기는등 행패를 부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9세의 나이로 아직도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무하마드·알리, 캐나다의 버빅과 오는12일의 대전을 앞두고 바하마의 낫소에서 트레이닝을 펼치고 있다. 이 트레이닝을 보기위해 팬들은 $3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알리의 왕년의 적수 조·프레이저도 37세의 나이를 잊은채 링위로 돌아오겠다고 발버둥이다. 3일 저녁 시카고에서 점보커밍스와 룸백전을 벌인다. 과연 이들이 권투를 위해 링에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위해 선지? 권투선수 나이 30이면 환갑 이라는데!

## 이성 관심못받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여성들에게 생기는 우울증의 원인을 조사한 최근 연구는 여성들이 그들의남편이나 남성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때 우울증에 걸릴 확율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캘가리대학 심리학교수 찰스·코스텔로가 400명이상의캘가리거주 여성들을 상대로 2년에 걸쳐 조사한것이다.

코스텔로교수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심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때 격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코스텔로는 부부사이에 갈등과 같은 "치유 조정가능한 상황"이 죽음이나 질병같은 "치유 조정불가 능한 상황"보다 더욱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흔히 여성들중에 "조정가능한 상황"에 대해 자기자신을 견책하며 우울증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으며이러한 여성들은 상대방남성에 의해 자기인생의 가치가 많이 좌우된다고 보기때문이다. 이런 여성들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자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때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코스텔로씨는 말한다.

연령별로는 25세이하 여성의 45%가 우울증으로고생, 가장 높은 율을 나타냈다. 25세~35세 연령그룹은 34%, 36세~45세그룹은 오직 10%를 나타냈다

## 돼지번식에
### 대가족제도 바람직

동료돼지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건장한 종자수퇘지가, 홀로 격리되어 제멋대로 자란돼지보다 훨씬 "카사노바(정력 좋은 호색가)적인 면을 보인다.

이같은 발견은 캔사스주립대학 연구반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돼지사육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다. 돼지사육업자들의 생계는 생식이 왕성한 종자수퇘지에 좌우된다.

"우리는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아직 규명을 못했고, 이런 결과를 예상치 못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실험결과이다"라고 이번 연구를 주도한 과학자가말했다

**주간女性**

## 배재 임원개선
### 26일 연말파티

배재동창회는 임원진을 개선하고 오는 26일 연말파티를 개최한다.

장소는 손명수 태권도장이고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손명수, 부회장:송우진, 총무:김정현

### "생명의 말씀"TV프로

—City-TV : 채널79. 케이블7이
일요일 아침 8시반~9시
—MTV : 채널47. 케이블4
목요일낮 12시반~1시

12월6일 : 설교〈성숙한 신앙〉2—박희민 목사
간증—권순국 전도사
독창—신성하

12월13일 : 설교〈땅을 정복하라〉—조영택 목사
(서울 장석교회 시무)
독창—서병수 집사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⑽②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는 여인을 셋이나 취했고, 그들은 그에 대한 두려움때 문에 조금도 반항하지 못하고 끌려갔다.

형인 카쿠트에게로 갔던 자기 부인은 병이 퍼지자, 제일 먼저 죽어버렸으므로 가꾸미는 그렇게 된 것이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 얻은 부인들에게 마귀의 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 주었다.

바로 20세기가 되는 해는 이할미우트에게는 가장 사악한 해였고, 그해는 바렌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고통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후에도 수차례 전염병과 잦은 환란이 계속 닥쳐왔다.

사슴뼈가 높이 쌓여있는 거대한 호수로 흘러내리는 틀레말리콰이란 작은 강을 따라서 전염병이 오던 삼년째 되던 겨울에는 다섯개의 이글루가 있었지만봄이 돌아오자 그 이글루 들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려, 텅 빈채로 남게되었다. 가을에 사슴이 그지역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이 죽음의 장소에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을 찾아 왔다가 목격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그는 자기가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 모두 벌거벗고 얼어붙은 시체가 되어 이글루 밖에 흩어져 있더라고 말했다. 이런 일은 사람이 굶어 마지막 죽음으로 넘어갈 때 가끔 생기는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미쳐버림인 것이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이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눈위를 마구 뛰어다니면 죽음이 빨리 와서 오랫동안 고생하다 죽는 것을 막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이 이 북 주평원의 표면에서는 매년되풀이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한 지역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다른 지역 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또 너무 늦어버린 뒤에야 그 고난을 알게 되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과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이할미우트는 서서히 인구가 불어나기시작했다. 지금까지 이할미우트의 운명은 수없이 많은 인명을 잃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재기에는 관대한 것 같았다.

가꾸미가 그 무역소에다시 찾아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도 기억하고 있었다. 무역자들은 바렌을 금광업자들이 깊은 산중에 광물이 수없이 묻혀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역자들은 서서히 북쪽으로 잠식해 들어가, 드디어 바렌의 경계선에무역소를 차리게 되었다.

거기서 마침내 바렌평원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끊겼던 접촉을 다시 갖게 되었다.

이 접촉은 20세기가 들어선 10여년후에 한 무리의 이할미우트가 사슴을찾아 남쪽 수림 극한 지대까지 왔다가 그때 가장 북쪽에 위치한 무역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때부터 였다.

접촉이 새로 이루어지자 이 사람들과 무역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많은 이할미우트는 총을 구하게 되었으며, 밀가루와 돼지기름을 구입해서 이작은 무역소와 접촉했던 사람들은 그 전염병과 재난에서 무사하게 살아남을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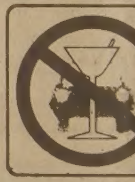
그러나 그들이 백인들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더 악질적인 다른 질병과 세상에 알려지지않은 굶주림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백인들의 세계제1차대전의 전운이 짙은 몇년간휜 여우의 가죽값이 한정없이 올라가서 이 관계의 무역은 이할미우트로 하여금거의 여우만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극도와 창려를 하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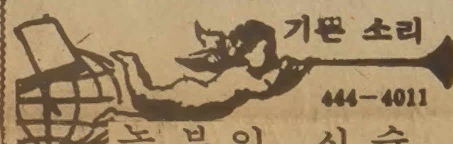
그러자 전쟁이 터졌고, 여우털값은 하락에 하락을 면치못하게 되어, 바렌의경계선에 자리잡은 무역자들의 활동이 갑자기 끊기게 되어버렸다.

(계속)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 놀부의 심술
**— 안 상 엽 —**

12월은 "반성의 달이다. "질투는 해도 심술궂은것은 나쁘다"는 속담이 있다. "질투"는 모든 자연인이 타고난 본성의 하나이지만, "심술"은 그 본성의 악하고 부정적인 면이 마음속에서 작용을 해 나타나는 술책 이기 때문인 것이다.

보통 여자는 질투로 가득찬 존재로 표현한 사람도 있으나, 여자만이 아니라, 실상 모든 사람이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질투는 인간의 생리요 또한 본성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가지가 도사리고 앉아있는데, 밝은면을 향해 희망을 갖고, 동정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반면에 질투의 어 둡고 부정적인 면이 작용되어 적의를 품고, 해치려는심술을 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안히 잠드는 베개밑에 총을 묻어두고 있어야하는 사람도있다.

질투는 자연인이 갖고있는 욕망이요, 누구나에게 있는 애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실상 인간의 모든일은 사람이 욕망을 추구하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수천수만가지의 문화재와 인간역사의 내용이 그랬으며, 싸움과, 전쟁과, 죽음의 문제들이 곧 질투가깔려있는 욕망추구의 결과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투와 욕망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다는점을 깨닫게 된다. 내면적인것과, 외형성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 즉 질투와 욕망이 있다해도 이웃에게 대한말과 행위는 윤리와 법과 도덕률에서 벗어나서는안되는 것이다.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거나 조절하지 못할때심술대로 이웃을 해치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놀부의 심술 하면 흥부에게 대한 질투요, 또한 자기반성이 없는 무법자임을 풍자적인 이야기로 인간 사회에 들려주고있는 것이다. 즉"우는아이 더 때려주고, 남의집 호박에 말뚝을 박고, 꿀사동이 엎어놓고 치며, 길에 허방을 만들어 바쁜사람 넘어지게하는"등등의 심술은 결국 흥부의 박과 놀부의 박이 깨질때 복과 저주의 정반대의 결과로 결론을 보여준다. 질투가 있을지언정 심술을 부려서는 안된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만이 자유롭고, 스스로 자기가 남의 주인역인양 말하고 행동한다. 놀부의 심술과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아의식은 있을지 모르나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반성이 있을때, 사람은 곧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동시에 남을믿고 아끼고 사랑 하면서 존중하게 된다. 놀부의 심술 속에서는 자기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

동양인의 윤리관에는 모든 판단규정이 율(律)과예(礼)와 의(義)에 기준을 두었다. 그러나"율"보다는 "예"가 높고, "예"보다는 "의"가 가장높은 가치임을강조 한다. 즉"법"이 인간가치를 규제못함이란 그보다 더 높고높은"예"와"의"와"신(信)"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타난 첫번 살인자는 질투한 나머지 심술을 부린자이다(창세기 4장). 형"가인"과 동생"아벨"은 분명히 생업이 다르고, 제물이 달랐고, 그들의 정성이 달랐다. 그 제사에 대한 판단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인간속에는 질투가 있고, 질투후에 심술을부려 칼로 찔러죽인 후"내가 그를 지키고 돌보는 자이냐?"고 시침을 떼고 반문하면서 자기"의"를 내세웠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질투의 하나님"(출20:5, 34:14, 수24:19)앞에 겸허하게 서야할 것이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한인오케스트라 제2회공연장면

토론토한인교향악단 제3회공연
FAMILY CONCERT

토론토한인교향악단은 그동안 교민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저 아름다운 성탄음악으로 Family Concert를 마련했읍니다. 모두 오셔서 부담없이 성탄의 복된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 휘 : 김 승 순
일 시 : 1981. 12. 12(토) 7 : 30 p.m.
장 소 : EAST YORK COLLEGIATE
650 Cosburn Ave. at Coxwell
입장료 : 무료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금번 실시된 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선거에 저희를 아껴 주시고 성원해주신 회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당, 락을 불문하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충고를 저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뭉쳐진 단결력을 바탕으로 알찬 성장을 계속해온 협회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흔들리거나 이 시점에서 갈팡질팡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현재까지도 저희들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이번 선거전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을 변함없이 협회발전을 위해 쏟아주시고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를 중심으로굳게 단결하여 우리의 권익을 옹호하는 협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실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낙선의 고배는 마셨으나 이런 기회가 협회발전에 공헌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자위를 하면서 앞으로 회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해나갈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1981년12월3일

임철원. 하소영. 최복기근배

## 美國에서 가장 人氣높은 大學은

# 1位 프린스턴 2位 하버드

## 졸업생의 著名인사數와 비례

### "出世하려면 名門大우수科 택하라" 경쟁치열

### MIT는 宇宙·電子공학에 앞서 學科別로 法科는 하버드 예일大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이른바 출세길은 일류대학의 우수한 학과부터 졸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문에 대학입학예비고사같은 입학자격 시험을 치른 대학지망생들은 적성에 맞춰 일류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대학지망생들은 워터게이트사건같은 큰 사건을 전후해 법과로 유명한 하버드, 예일, 콜럼비아대학을 많이 찾았다. 그여파로 언론에 대한 신망이 높아져 신문기학원의 인기가 올라가 미주리대의 성가가 높아지기도 했다.

경영대학원의 대명사로 통해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이 77년도에는 스탠퍼드대의 경영대학원에 인기도를 빼앗기는 현상도 빚었다.

인기도는 교수, 시설, 전통, 신입생의 월등으로 우선 평가되지만 출신학교를 배경으로 졸업생들의 사회적활동에 그 기준을 두는게 일반적이다.

대학평가방법의 하나는 주요지역별로 사회적 지위를 담은 저명인사 명사록에 오른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80년말 문교성은 이같은 몇개의 기준과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을 기준해 학과별 명문교와 전반적인 질로 본 대학의 인기도를 발표했다.

이자료에 따르면 55개 대학의 수준별 순위는 1위 프린스턴대, 2위 하버드대, 3위 미시건대, 4위 예일대, 5위 스탠퍼드대, 6위 캘리포녀주립 버클리대, 7위 위스콘신대, 8위 코넬대, 9위 시카고대, 10위 매사추세츠공대등이다.

법과의 경우 1위 하바드대, 2위 예일대, 3위 콜럼비아대, 4위 미시건대, 5위 캘리포녀주립버클리대, 6위 시카고대, 7위 프린스턴대, 8위 코넬대, 9위 스탠퍼드대, 10위 캘리포녀주립 LA대의 순이다.

의예과는 하버드대, 미시건대, 예일대, 코넬대, 캘리포녀주립 버클리대, 캘리포녀주립 LA대, 일리노이대, 콜럼비아대, 스탠퍼드대, 캘리포녀주립샌디에고대의 순이다.

다른학과에 있어서 하버드대가 전국1, 2위권에 드는 학과는 농업(2위) 미술(2위) 영문학(2위) 생화학(1위) 생물학(2위) 화학(1위) 수학(2위) 인류학(2위) 경제학(1위) 역사학(2위)등이다.

MIT는 우주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분야에서만 전국 선두를 달리며 화공(프린스턴대) 핵물리(콜럼비아대) 석유공학(텍사스대) 수학(버클리대) 물리학(프린스턴대) 지학(시카고대)등은 다른 대학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문학은 미주리대, 노드웨스턴대 ◇철학은 프린스턴대, 미시건대였다. ◇교육학은 미시건대, 위스콘신대 ▲경영행정은 펜실베이니아대, 인디애나대 ◇건축학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사학은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정치학은 예일대, 프린스턴대, 시카고대, 하버드대 ◇심리학은 스탠퍼드대, 미시건대, 예일대 ◇사회학은 미시건대, 시카고대등이 명문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일류고등학교 또는 예비학원은 모두 49개로 대학입학전부터 명문고교의 입시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동성이 분석한 80년대 중반이후에 직업의 기회제공도를 보면 치의위생분야가 1백19%로 가장 높은 신장률이 예상되며 광산(44.3%) 석유화학(37.3%) 지학분야(42.5%) 수학(40%) 임상실험기술자(42.8%) 치과보조원(47.8%) 간호원(54.6%)등이다.

교육자의 경우는 중고교의 교사는 오히려 11.3%가 줄어들고 대학교수의 기회는 3%의 성장만이 예상되며 성인교육교사(33.9%)와 유치원교사(25%)는 기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겨울철이 되면 털코트가 애용되지만 비키니 차림에 털코트를 입은 여배우도 있다. 여우 에디 윌리엄즈양은 지난 74년 12월4일 비키니에 부츠, 털코트 차림으로 로마 공항에 나와 비행기에 탑승했다.

## 「코리언 파워」의 비판 (하)

박 찬 도 (한인회 전 부이사장)

상대가 악할 때, 선으로 대함으로써 선하게 되고, 상대가 우월의식을 나타낼 때, 긍지와 겸손으로 대함으로써 겸손해지는 원리를 생각하여, 상대가 "어웹"할 때 이를 존중해 줌으로써 상대도 존중하게 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더한 값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하나씩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너무도 황당한 생각이며, 위험한 생각이라 하겠다.

가급적 교회수가 덜 많았으면 좋겠다고는 말할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단체도 자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생기는 것인데, 하물며 영적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어떤 물질에 값지워 제한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보아진다.

서씨의 글이 겉으로 보면 서로 믿고 힘 키워 잘해 나가자는 내용이며, 좀더 희생봉사와 단합으로잘 살아보자는 뜻이로되, 그 사람의 마음상태로 볼 때 불존중적 우월의식과 과욕이 있어서, 서로 마음에반발과 갈등과 불신을 넣어주게 되어있다.

그래서 회의 임원으로있을 때엔 "너희들 잘 협조하라" "협조않으면 나쁜놈이다", "나는 죽도록 일하고 너희를 위해 희생, 봉사하는데 못 알아주느냐?" 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평회원으로 돌아가면 ( 우월의식과 과이기심으로) 그런 말을 들어야 할 행동을 부지부식간에 하게 되어있다. 임원과 회원의 피차의 마음이 그러면 협조, 봉사, 단결을 강조하나, 협조, 봉사상황이 생기지 못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힘을 키우려면 좀더 마음에 사랑(타애심, 이타심)이키워져서 "그깟놈의 한인회"라고 할 때 이를 받아들일 아량이 있어야 하며, 더욱 일만 열심히 하여 저절로 따라오도록 되게 하여야할 것으로 안다. —끝—

## 3장로 선출

### 임마누엘교회

토론토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 조창환)는 29일임시공동의회를 열고 임기만료된 3장로직에대한 장로 선출을 했다. 임기 만료된 장로는 이영일, 이영철, 조남욱 제씨로 이중 이영일 이영철씨는 장로투표 결과 재선되고, 조의문씨가 집사에서 장로로 새로 선출되 되었다.

현재 동교회는 9명의 시무장로가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 결 혼 축 하

신랑 : 김종식군(김문량 씨 손자)
신부 : 박정현양(김부미자 씨 딸)
때 : 12월12일(토)하오1시
곳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
주례 : 박희민 목사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 $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무 중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Presenting the one and only…

칸투 가구점은 진실로 당신의 가정을 가장 현대적이며, 또한 고전적인 분위기를 만들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가구점입니다. 북미의 최고 유명가구점으로 부터 수입된 전통적인 조화미, 유럽전문가의 현대적이고 뛰어난 디자인및 고급재료.

이러한 모든것을 칸투 가구점을 보여 드리고, 당신의 가정을 꾸밀것입니다. 옆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현대적 놋쇠 침대로 이태리로부터 수입되었읍니다. 거울을 같이 조화를 이루지요.

* 토론토 최대 가구점중의 하나 (고급수입상)
* 최고의 이태리안 디자이너가 설계제작된 가구
* 3층건물 전체가 온갖종류의 가구를 구비한 Special Store
* Large Selection(40,000 sq.)
* 아프터 써비스 보장
* 최고급 질을 보장

cantú interiors
CANTÚ FURNITURE & INTERIORS LTD.
※뒤에 충분한 파킹장이 있음.
2562 EGLINTON AVE. W.(에그린톤×킬) TEL : 653-3353~4

# 油價·전기요금 6% 引上

## 精油社別 가격 自律化… 내년부터

### 石油 29일0시 電氣 1일0시

### "引上要因11%" 내년 또올려

정부는 석유가격과 전기요금을 각각 6·0%씩 인상했다. 동자부는 29일 0시를 기해 석유류제품가격을 공장도기준으로 6·0%, 소비자가격기준으로 5·7%인상하고 전기요금을 12월1일0시를 기해 6·0%인상한다고 발표했다. 朴鳳煥동자부장관은 이날 이번 기름값을 올린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정유사의 어느주유소든 기름값을 똑같이 받도록한 현행의 유류최고판매가격고시제를 폐지, 각社別로판매값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는 경쟁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번 油價인상으로 석유류제품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ℓ당 ▲보통휘발유는 7백원에서 7백40원으로 40원 ▲등유는 2백68원에서 2백92원으로 24원 ▲輕油는 2백55원에서 2백78원으로 23원 ▲벙커C油는 1백98원19전에서 2백11원49전으로 13원30전 ▲가정용프로판가스는 4백48원56전에서 4백64원82전으로 16원26전이 인상됐다.

그러나 공업용원료인 납사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높고 석유화학업계의 불황을 감안, ℓ당 1백81원37전에서 1백75원74전으로 3·11%인 5원63전을, 溶劑는 5백95원73전에서 4백94원31전으로 17%인 1백1원42전을 각각 내렸다.

전기요금은 ㎾/H당 종전의 평균판매단가 64원77전에서 68원64전으로 3원87전이 올랐다.

㎾/H당 ▲평균 주택용이 77원22전에서 78원34전으로 1·44% ▲업무용이 1백37원73전에서 1백28원58전으로 ▲산업용이 54원76전에서 58원62전으로 ▲농사용이 26원53전에서 28원39전으로 ▲가로등이 78원51전에서 84원1전으로 각각 7%씩 일률적으로 올랐다.

동자부는 기름값과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11%선에 달하고 있으나 가격인상으로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해 6%씩만 인상하고 나머지는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원유가 도입가격 상승 0·7%, 환율상승 1·6%, 비축기금을 배럴당 1달러에서 1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데 따라 1·2%, 원유도입금융비현실화 2·0%, 정제비 현실화 0·5%등 모두 6·0%의 인상요인만을 현실화시키되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을 그대로 묶어두어 소비자가격은 5·7%가 인상케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회사의 판매량감소에 따른 재고비용원유 滯船料 적자액보전등을위한 인상요인은 이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것.

朴장관은 이번에 油價만조정하고 전력요금은 내년초에 인상시키려했으나 인상요인이 11%에 달하고있고 월동기를 앞두고 서민부담을실질적으로 경감토록 시급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으로 인상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주택용 누진율단계를 현행9단계에서 6단계로 3단계를, 영업용은7단계에서 5단계로 2단계를줄이고 1주택數家口 요금부과방식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1주택에 여러세대가 살더라도 계량기를 따로따로 부착시키지 않았으면 총사용량에대해 단계별로 체증식누진율을적용했으나앞으로는가구당50㎾/H까지는 1단계요금을적용토록했다.

1주택에 3가구가 살고있으면 한가구당 50㎾/H기준으로해서 1백50㎾/H까지는 1단계요금을 적용하고 그초과분에 대해 단계별누진율을 적용키로했다는것이다.

따라서 셋방을놓고있는 주택의경우 이번 전기요금인상에도불구하고평균21·5%의 요금이 인하되었다는것이다.

또한 산업용 피크타임요금을 현행 ㎾/H당 重負荷43원43전, 輕負荷21원84전, 피크타임 1백9원14전에서 31원20전, 46원50전, 93원55전으로 조정했다.

동자부는 도매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油價인상으로 1·0%, 전기요금인상으로 0·25%등 1·2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油類(주유소가격)**

| 보통휘발유 | 경유 | 등유 | 벙커C유 | 프로판가스(일반) |
|---|---|---|---|---|
| ℓ | ℓ | ℓ | ℓ | kg |
| 7百 ↓ 7百40원 | 2백55 ↓ 2百78원 | 2百68 ↓ 2百92원 | 百98·19 ↓ 2百11·49원 | 8百83 ↓ 9百15원 |

※벙커C유는 대리점값

**전기요금**

| 가정용: 百kwH 이하 基本 | 가정용: 처음 50kwH kwH當 | 가정용: 다음 50kwH까지 | 영업용: kwH當 基本 | 영업용: 처음 90시간 kwH當 |
|---|---|---|---|---|
| 3百17 ↓ 3百45원 | 29·88 ↓ 32·55원 | 71·65 ↓ 78·05원 | 3千7百80 ↓ 4千45원 | 79·18 ↓ 85·50원 |

◇유류流通단계별 판매가격

(단위 원/ℓ)

| 유종별 | 구분 | 정유회사 판매가격: 공장도 | 정유회사 판매가격: 세후 | 대리점: 수수료 | 대리점: 가격 | 주유소: 수수료 | 주유소: 가격 |
|---|---|---|---|---|---|---|---|
| 고급휘발유 | 현행 | 369·47 | 944·04 | 25·84 | 969·88 | 40·12 | 1,010·00 |
| | 조정 | 391·64 | 1,000·69 | 25·52 | 1,026·21 | 39·79 | 1,060·00 |
| 보통 〃 | 현행 | 257·34 | 660·34 | 17·23 | 677·57 | 22·43 | 700·00 |
| | 조정 | 272·78 | 699·97 | 17·41 | 717·38 | 22·62 | 740·00 |
| 등유 | 현행 | 215·78 | 242·92 | 10·12 | 253·04 | 14·96 | 268·00 |
| | 조정 | 237·34 | 266·96 | 10·10 | 277·06 | 14·94 | 292·00 |
| 저유황경유 (0·4%) | 현행 | 197·50 | 238·40 | 9·21 | 247·61 | 14·39 | 262·00 |
| | 조정 | 217·25 | 262·00 | 9·41 | 271·41 | 14·59 | 286·00 |
| 경유 | 현행 | 192·04 | 231·97 | 8·92 | 240·89 | 14·11 | 255·00 |
| | 조정 | 211·25 | 254·93 | 8·94 | 263·87 | 14·13 | 278·00 |
| 저유황BC유 (1·6%) | 현행 | 186·74 | 210·97 | 9·10 | 220·07 | | |
| | 조정 | 199·87 | 225·75 | 9·10 | 234·85 | | |
| 경질중유 | 현행 | 184·74 | 208·77 | 7·91 | 216·68 | | |
| | 조정 | 195·82 | 221·29 | 7·91 | 229·20 | | |
| 저유황BC유 (2·5%) | 현행 | 179·60 | 203·12 | | | | |
| | 조정 | 192·23 | 217·34 | | | | |
| 중유 | 현행 | 175·00 | 198·06 | 8·10 | 206·16 | | |
| | 조정 | 185·50 | 209·94 | 8·10 | 218·04 | | |
| BC유 | 현행 | 167·69 | 190·02 | 8·17 | 198·19 | | |
| | 조정 | 179·48 | 203·32 | 8·17 | 211·49 | | |
| 제트유 | 현행 | 250·60 | 281·22 | | | | |
| | 조정 | 250·30 | 281·22 | | | | |
| 납사 | 현행 | 164·88 | 181·37 | | | | |
| | 조정 | 159·76 | 175·74 | | | | |
| 용제 | 현행 | 541·57 | 595·73 | | | | |
| | 조정 | 449·37 | 494·31 | | | | |
| 아스팔트 | 현행 | 200·19 | 220·21 | | | | |
| | 조정 | 212·20 | 233·42 | | | | |
| 프로판(一般用)(원/kg) | 현행 | 613·70 | 708·43 | 71·82 | 780·25 | 102·75 | 883·00 |
| | 조정 | 641·32 | 740·82 | 71·63 | 812·45 | 102·55 | 915·00 |
| 〃(도시가스용)(원/kg) | 현행 | 396·04 | 435·64 | | | | |
| | 조정 | 413·86 | 455·25 | | | | |
| 부탄(일반용)(원/kg) | 현행 | 612·62 | 706·43 | 66·78 | 773·21 | | |
| | 조정 | 640·19 | 738·71 | 66·78 | 805·49 | | |
| 〃(도시가스용)(원/kg) | 현행 | 394·64 | 434·10 | | | | |
| | 조정 | 412·40 | 453·64 | | | | |

◇주택용전력요금표

(단위 원)

| 현행 | | 개정 | |
|---|---|---|---|
| ▲기본요금호당 | | ▲기본요금호당 | |
| 100KWH이하 | 317 | 100KWH이하 | 345 |
| 101~ 200KWH | 860 | 101~500KWH | 690 |
| 201~ 500 〃 | 1,719 | 1,000KWH초과 | 1,036 |
| 501~1,000 〃 | 3,440 | | |
| 1,000KWH | 6,878 | | |
|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대하여 KWH당 | | ▲전력량요금 사용전력량에대하여 KWH당 | |
| 처음 50KWH까지 | 29·88 | 처음50KWH | 32·55 |
| 다음 50 〃 | 71·65 | 다음 50 〃 | 78·05 |
| 다음 50 〃 | 93·41 | 다음 50 〃 | 106·65 |
| 다음150 〃 | 135·67 | 다음150 〃 | 154·65 |
| 다음150 〃 | 166·54 | 다음200 〃 | 202·35 |
| 다음150 〃 | 243·50 | 500KWH초과분 | 354·65 |
| 다음200 〃 | 309·84 | | |
| 다음200 〃 | 357·64 | | |
| 1,000KWH초과 | 417·41 | | |

## 金利 預金1.2、貸出1%引下

### 30일부터施行 政策금융·저축예금등 그대로

은행일반대출금리가 19·0%에서 18·0%로 인하됐다. 1년만기정기 예금금리도 18·6%에서 17·4%로 내렸다.

★관련기사2면

28일 열린 임시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일부정책 금융을 제외한 은행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가계종합예금과 저축예금등을 제외한 예금금리를 모두 1·2%포인트씩내려 30일부터 시행토록했다.

한국은행은 국내물가와 국제금리가 현저한 하락세를보이고 있어 금리를 재차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화당국은 11·9금리조정당시 앞으로 금리는 경기, 물가, 국제수지, 국제금리등 10개 주요경제지표에 連動시켜 수시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힌바있다.

이번의 금리인하도 이같은 방침에 따른것이며 연말까지 물가와 국제금리가 더하락할 경우 연내에 금리가 소폭 재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업들의 이자부담은 향후 1년간 1천억원정도 경감될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금리 개정으로 대출금리는 수출금융,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 군수산업지원자금, 에너지절약 시설자금등 정책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1·0%포인트 인하됐고 예금금리의 경우 3개월짜리 정기예금, 6개월짜리정기적금·저축예금·가계종합예금·양도성 정기예금증서등을 제외한 모든 예금금리가 1·2%포인트 내렸으며 6개월짜리 정기예금만은 0·6%포인트 인하됐다.

### 제2金融圈도 金利一部조정

한편 정부는 이번 금리조정에따른 후속조치로보험·증권등의 제2금융권금리도 조정할 예정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제2금융권 금리가운데 短資회사의 어음·社債 발행금리및 상호신용금고 금리등은 현재 수준대로 두고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證券金融의 유통금융금리등만 1%포인트정도 인하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단자회사 금리는 지난 11·9조정때도 수신금리만을 조정했을 뿐이며 회사채 발행금리도 연22·5%에 상한2%포인트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 적용토록한 금리수준을 계속 유지해오고있다.

## FBI "搜査방향 좁히고있다"

### 美警察엔 緘口令내려

金泰雄특파원 수사관과會見

【뉴욕=金泰雄특파원】본기자는 28일상오 뉴욕맨해턴관현가의 페드럴·플라자 26번지의 페드럴빌딩 28층에있는 FBI사무실을 찾아 2백만달러 증발사건에관해 존·윌리엄·델센 차석특별수사관과 일문일답을 나누었다.

이날상오10시15분부터 약15분간 나눈 대화에서 그는 매우 사교적이면서도 사무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FBI에 20년간 근무한 노련한 수사관으로 맨해턴지역 범죄과의 책임자였다.

―한국신문에서는 이사건과 관련, 많은 자료들을 분석, 보도하고 있는데 FBI의 수사활동은 어떤가.

▲그와같은 자료는 우리들 수사에 도움이 될것이다. 고점에 유의해서 수사를 진행토록 지시하겠다.

FBI는 현재 한국의 KAL관계자, RNB은행원등 많은 사람들을만나 자료를수집하고있다.

그러나 아직용의자를 체포하지는 못했다.

FBI는 미국 경찰의협조를 받고있는데 경찰은 이사건이 공항과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와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찰에 함구령을내렸다.

―이사건의 단서는 찾았는가.

▲우리는 많은 정보를기초로 수사의방향을 점점좁히고 있다. 단지 우리의 수사를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어떻게 활동하고있느냐를 얘기하지 못하는게 유감이다.

―많은 나라들이 용의자를 연행해 조사하는데 FBI는 어떻게 하는가.

▲연행하려면상당한증거가 있어야 한다. 사건의 수사가 언제쯤 결말이날수있느냐 하는문제는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용의자를 체포하고 법정으로 넘길때에는 FBI는 체포된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그리고 직업만을 공표한다. 그이외의 것은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우리가 발표할수 있을단계가 되면 꼭 알려주겠다.

―은행이건 현상금은 얼마인가.

▲RNB가 10만달러를 건것으로 안다.

―은행이나 운송회사는 현재 변호사를 쓰고있는가.

▲쓰고 있다고 본다. RNB의 경우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그는 말은 하지 않지만 사건은 뉴욕에서 벌어진것으로 보고있는 눈치였다)

―운송차가 하오2시에와 현찰행낭을 가져갔다. 일단 금고에보관한후 밤12시가지나 새벽2시에 이륙한것으로 보이는 KAL기에 다른방근무자가 운송한것으로보이는데…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다. 그럴듯하다.

RNB가 미화를 현송할때에 외환은행의 옛주소로 보냈는가등을 묻자 그는 아직 RNB측에서 대변할 사람과 대책등을 결정하지 못했기때문에 뭐라고 말할수없다고 말했다.

## 겨울工事에 不實없도록

### 全大統領 잠실 각競技場시찰

全斗煥대통령은 28일하오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건설중인 蠶室서울종합운동장의 主競技場, 야구장, 선수촌건립예정지와 실내수영장을 약1시간동안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세계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훌륭하게 치르기위해 전국민들의 질서의식이 체질화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벌여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들 경기등에 활용할수있는 旣存시설등을 조속히 파악해종합적인활용계획을수립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세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차질이 없도록 건설공사에 만전을기하라』고 말하고 『冬季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공사가 不實하게 되지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서울종합운동장의 主競技場에 도착, 朴英秀서울시장, 裵文煥종합운동장건설본부장, 李炳環운동장관리소장의 안내로 주경기장과 야구장을 차례로 둘러 건설추진현황등을 살펴봤다.

全대통령은 이어 실내수영장에서 연습중인 선수들과 일반수영객들의 수영모습과 시설등을 둘러보고 수영장내 응접실에서 朴시장으로부터 서울종합운동장건설기본계획등에 관해 보고를 받은뒤 종합운동장옆에있는 선수촌건립예정지를 둘러봤다.

## 日外相 에사끼有力

【東京28日=聯】스즈끼(鈴木)일본수상은 오는30일의 내각개편에서 새외상에 에사끼·마스미(江崎眞澄)前통산상(다나까派)을 기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스즈끼수상이 무역마찰과 방위력증강등 현안해결을 위해 통산상과 방위청장관을역임한 에사끼(65)씨의 외상기용을 고려하고 있다고보도했다.

그러나 다나까파 내부사정에 따라서는 외상에 고사까·도꾸사부로(小坂德三郞·65)前경제기획청장관이 기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郞)정조회장의 기용도 있을수없다고보는 견해도 아직 유력하다.

### 社會漫評

"아이구 어지러워라…"

### 地平線

필리핀과 영국사이에 때아닌 補身湯문제로 외교분쟁이 심각하다. 영국인은 개고기를 필리핀에서 먹는데 놀라고, 필리핀사람은 영국인이 놀랐다는데 놀랐다고한다. ▼補身湯하면 빼놓을수없는것이 우리나라이기도 하다. 영국의 動物愛好家들이 들으면 펄쩍뛸얘기지만 일부한국사람은 개고기먹는것을 그리 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민족은 肉食을즐긴 몽고계 민족인데다가 孔子도 개를 먹었다는 故事때문에 개고기를 먹어왔다. 봄에 東京에서 열린 東아시아의 食文化심포지엄에서 李盛雨교수는 東洋三國 韓中日가운데 개고기먹는 습성이 남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밝힌바 있다. 중국에서는 옛날엔 개고기를 먹었으나 개는 충직한동물이라는 이유로 唐代以後엔 거의 안먹게 되었다고한다. ▼湛軒洪大容이 쓴1천7백년대의 燕行錄을봐도 돼지와 양을 중국사람들은 먹지만 개고기는 안먹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한데 우리나라에선 1600년대에 나온 飮食知味方에서 개고기요리가 큰비중을 차지하고있는가하면 동국세시기에도 狗醬얘기가 나온다. 三伏엔 개를삶아 파를 넣고 푹끓인 狗醬을 먹어야 虛災를 막는다고 했다. 고추가루를 타서 밥을말아먹으면 시절음식으로 좋아 땀을 흘리게되고 더위를 물리치며 허한것을 보충할수있다고 적혀있다. ▼이번의 英比보신탕논쟁은 런던의 선데이·미러紙가 보신탕으로 식탁에 올라갈 개들이 쇠줄에 묶인 사진을 1면에 게재한데서 비롯되었다한다. 대처영국수상과 영국의원들이 끔찍한사진에 혐오감과 놀람을 금치못하고 의회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동물애호단체들은 對比무역중단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단다. 이에놀란 필리핀사람들은 즉각 개고기를 먹든 안먹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문제라고 반박하고 필리핀사람도 영국인못지않게 개를 사랑하며 필리핀의 대부분지역서 개도살이 금지되어있다고발끈했다. 어떤필리핀의원은 영국이식민지에서 인간에 잔인했던것이상으로 개에게 잔인하지않다고반격하고 필리핀사람들이 잔인하지 않다고 들쳤다. ▼英比補身湯논쟁같은건 아랑곳없이 요즘 서울거리에는 개고기에 마늘이나 漢方약재를 넣고 찐다음 그국물로만든 개소주가 나와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동물애호단체가 있고 개고기를 안먹는국민이 많지만 남의나라에서 개고기를 어떻게 보고있는가도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孔子도 먹은 개고기를 중국사람들이 왜안먹게되었는지, 우리민족은 개고기를그냥먹어야하는지, 또 불고기 갈비의 나라라고 쇠고기를 좋아해 비싼수입고기를 꼭들여와야하는지도 이기회에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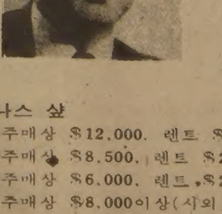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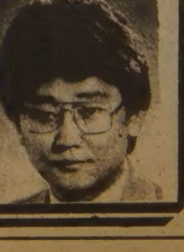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동주

도매상에의 초대
—AN INVITATION TO ALL THE RETAILERS—
★소매업자만 거래함★
우리 도매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상품이 진열돼 있읍니다.
기프트, 노블티, 사진기구, 필름, 은(銀)장식기구, 비데오. 선물용품등.

PRUDENTIAL DISTRIBUTORS
1377 DUFFERIN ST. TOR. M6H 4C7
(Just North of Dupont)
☎ : 536—1131
영업시간 : 월~금 9시~하오5시30분(토, 일요일 휴업)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세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2,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 "앨런「더큰膳物」받아"

## 日紙보도 친구 日人敎授가 건네줘

【東京28日UPI=聯合】리처드·앨런미국가안보담당보좌관은 지난1월「큰선물」을 받은 뒤 일본여성잡지와 낸시여사와의 회견을 주선해준것으로 美日합동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마이니찌(每日)신문이 28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신문은 앨런보좌관이 레이건 대통령취임이틀전인 지난1월18일 미국에온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교오또(京都)산업대학의 다까세·다모쓰씨로부터 아직도그내용이 밝혀지지않은 어떤「큰선물」을 받고 인터뷰를주선해줬다고 말했다.

마이니찌신문은 이선물이 앨런보좌관이 인터뷰사례금조로 받은 현금 1천달러와 여자손목시계2개이외의 또 다른것임을 시사했다.

마이니찌신문이 보도한 美日합동수사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보면 ①앨런이 금시계하나외에 수정손목시계 1개를 더받았고 ②사례금 1천달러가 들어있는 봉투겉봉에는 1만이란 숫자가 적혀 있었으며 ③다까세교수의 「큰선물」때문에 회견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었다는 사실등이다.

## 낸시女史 앨런의 解任주장

【워싱턴28日AP=聯合】레이건美대통령의부인 낸시여사는 일본잡지로부터 1천달러를 받아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리처드·앨런 국가안보담당보좌관의 교체를 강력히주장하고 있다고 28일 워싱턴·포스트紙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낸시여사가 제임즈·베이커백악관수석보좌관, 마이클·디버 차석보좌관등과 함께 앨런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이나 과거 그가 고문으로 근무하던 일본기업등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것은 중대한 잘못을저지른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이 대통령에게 끼칠 정치적타격을 줄이기위해 앨런보좌관의 교체를 강력히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美·蘇軍縮회담 내일開幕

## 유럽配置 戰域核감축토의

### SS20·퍼싱Ⅱ등 主要의제

【제네바27日AP·AFP=聯合】동서간의 핵무기경쟁을 완화내지 종식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美·蘇핵무기감축협상이 오는30일 제네바에서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년 6개월만에 개재된다.

美·蘇양국대표가 참석, 주로 유럽배치戰域核무기 감축문제를 토의하게될 이협상은 지난79년6월 빈에서 제2단계전략핵무기제한협정(SALTⅡ)을 조인한 이래 美·蘇가 처음으로 대좌하는 군축협상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대상은 소련이 중부유럽에 배치한 SS20·SS4및 SS5미사일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83년 유럽에 배치할 퍼싱Ⅱ및 크루즈미사일인데 런던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소련은 프랑스와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들도 이번 협상대상에 포함하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레이건 대통령은 서유럽에서 수십·수백만명의 반전및 반핵데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핵미사일배치를 상호완전금지하는 이른바「0의 선택」을제안했었다.

이번제네바 협상에서 논의될 무기중 가장강력하고 정확한 소련미사일은 SS20지대지핵미사일인데 이동발사미사일은 3개의 핵탄두를장착하며 각탄두는 1백50킬로톤의 파괴력을 지니고있다.

◇解散당하는 白堊館 대모隊 26일 백악관건너편에 텐트를 설치하고 레이건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항의를 표시해온 일단의시위자들이 27일새벽을 기해 경찰에의해 연행되고있다。【워싱턴27日AP통신=聯合】

# 女性들 反核 횃불데모

## 헤이그서 1萬명 1km 행진

【헤이그26日AP=聯合】북부암스테르담에서 35만명의 대규모의 여성들이 수도헤이그에서 침묵의 반핵횃불행진을했다.

유럽에서 새로운 미사일의 배치계획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위는 이날밤 시립공원에서 출발, 헤이그시내중심가를 약1km행진, 13세기 고성 리데르찰(騎士會館)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의 사당에 도착함으로써 끝났다.

이 여성시위대는 여성의원들에게 핵중거리미사일인 미제크루즈미사일 48기의 네덜란드영내 배치계획을 거부하라고 정부에대해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의 시위군중들가운데는 네덜란드거주 수리남및 터키소수민족의 대표들과 일본오오사까로 부터온 히로시마생존자협회의 대표들도 참석했는데 이들은 핵무기사용금지세계조약을 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정부자체내에서도 이핵무기배치계획을 둘러싸고 이계획을 무기한 연기할것을 주장하는측과 이계획을 지지하는측등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 "防衛費는 GNP1%線" 日首相

【東京27日=聯合】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27일 참의원에서 83~87년중의 이른바 중기방위계획기간중에도 방위비의 GNP 1%이내수준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지금까지 기회있을때마다 자신이 수상으로있는한 방위비의 GNP1%이내수준을유지하겠다고강조해왔으나 이를87년까지라고 기간을못박은것은처음이다.

그러나 방위청당국은 對GNP비율에 얽매이지않고 내년부터 83~87중기방위계획을 마련할방침으로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사람 발 利用 電氣생산

### 「마법의융단」에 큰 關心

#### 제네바 發明品展

【제네바=聯合】제10차 제네바국제발명품전시회에 인력을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해내는『마법융단』이 출품돼 관객의주목을 끌고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30개국의 각종 발명품들이 전시된 가운데 제네바에서 일주일동안 열리는 세계최대규모의 이번 전시회에 한국은 영상을 이중포착할수 있는『스테레오·카메라렌즈』를 출품했다.

◇악어調鍊師…설마 진짜일까 한소녀가 마닐라에 있는 리살공원어린이놀이터에서 악어와 꼭같이 만든 분수대에 머리를넣고 태연히 손을씻고있다。이 공원에는 콘크리트로 만든 태고적괴물모형이 20개나설치돼 어린이들을즐겁게해주고있다。【마닐라AP통신=聯合】

# 햇볕을 電氣로 직접變換

## 美조지아大 世界최초로 實用化 성공

【아틀랜타(조지아州)28日AP=聯合】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의 연구진은 사상처음으로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켜 동력장치에 공급하는데 성공, 태양에너지 개발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조지아공대의 과학자들은 스웨덴에서온 일단의 연구진과 합동으로 최근 스털링엔진을 이용해서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로변환, 그 전기를 조지아공대의 전력공급에 충당한다고 말했다.

조지아공대 공학실험소의 연구원인 더글러·넬바사는 『이번의 연구결과가 세계최초』라면서 태양 에너지 시스템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조지아전력회사로부터 공급되는 전기의 소비량이 감소되었다고 말했다.

## 美空軍, 日先進기술 탐내

### ICBM用 集積 回路등

【東京27日AP=聯合】미공군은 美·日군사기술교환계획에따라 통신·전자및 컴퓨터부문에 관한 일본의 선진기술을 원하고있다고 나마따메·오사무(生田目修)일본자위대항공막료장이 27일 전했다.

나마따메막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자신이 이달초순 미메인주 베드퍼드에서 미공군통신및 전자부문 관계자들과 만났을 당시 이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나마따메막료장은 미공군이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밀도집적회로(LSI)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는데 미국이 지난9월 합의된 美日군사기술교환협정에 따라 日측에 이같은 확고한 요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통한소식통들은 통산성이 미국과의 군사기술교환을 위한 최종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 세이셸群島의 未遂쿠데타

### 北傀 軍要員이 加擔 진압

【요하네스버그27日AP=聯合】세이셸군도에 파견돼있던 일단의 북괴군요원들이 25일밤 그곳에서 일어난 외국인 용병들의 쿠데타기도를 분쇄하는데 조력했다고 요하네스버그에서 간행되는 일간 시티즌지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前職군인이었던 장교였으나 지금은 세이셸군도를 여행중인 데이비드·콘라디씨의 말을 인용, 세이셸 라뒤 국제공항에서 용병과 정부군이 교전할당시 북괴군인들이 현지에 출동했으며 그중10여명이 엄호사격이 시작된것과 때를 같이해 용병들이 점거하고있던 건물로 돌진하여 유리창을 부수고 용병들에게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 쿠데타 傭兵주모자 英國출신의 大領說

【요하네스버그27日AP=聯合】지난25일 세이셸군도에서 쿠데타를 기도했던 백인용병의 막후지도자는 60년대초 벨기에령콩고(현자이레)에서 활동했던 영국출신의 용병지도자인 마이크·호어대령이라고 한 정통한 소식통이 27일 말했다.

일명 매드·맥스로 불리는 호어대령은 지난 1938년에 이레소총부대에서 복무했으며 이어 인도, 버마등지의 영국기갑군단에서 활동했다.

1946년 소령으로 제대한 그는 벨기에령 콩고로 건너가「특공대5」라는 악명높은 용병조직을 창설하기전 런던에서 수년간 회계사일을 보기도했다.

## 外信안테나

◆뉴질랜드總選실시=정치분석가들 사이에서 근래에보기드문 接戰이될것으로 예상하고있는 뉴질랜드총선이 28일 화창한 날씨속에 투표에 들어갔다.

정치분석가들은 國民黨의 로버트·멀둔 現수상이나 노동당의 월리스·롤링당수 그 어느 누구든 이번 총선에서 ...

◆美·이스라엘外相會談=【워싱턴AP=聯合】...

## 海外토픽

### 蘇는 低開發선진국

★美CIA보고서 指摘

미국의 소비수준에 비교할때 소련은 보트카나 기타 독한 술을 마신는것 이외에는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개발선진국이라고 美중앙정보국(CIA)이 작성한 보고서가 27일 지적했다.

美의회합동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이보고서는 소련인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있는 특징적 양상이라는 ...

# 메아리

## 팁

# 행정用語 千35개醇化키로

## 「被蒙하다」는 입다·「佩用」은 달기등

### 총무처서 便覽발간

【서울】총무처는 28일 행정사무표준화 작업의 하나로 行政用語 醇化便覽을 받간, 각행정기관에 배포했다.

행정용어순화편람은 각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있는 행정용어 1천35개를 선정, 국어순화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것을 수록했다.

행정용어순화대상은 公文書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인상을 주는 日本式한자어및 불필요한外來語로 정했다.

정부각기관에서 평상시 많이 쓰이면서 순화대상이 된 행정용어의 주요例는 다음과 같다.

▲割增料→웃돈, 추가금▲下馬評→물망▲포맷→양식, 체제, 書式▲被蒙하다→입다▲佩用→달기▲取締→단속▲吹込→녹음▲取調→조사(調査)▲就勞費→품삯, 심문, 신문▲...

## 스페인僑民 義捐金 外務部통해 本社에

【서울】한국일보 스페인支局은 본국의 水災민을위해 현지교민들로부터 모금한 水災義捐金 2백30달러(美貨)를 28일 외무부를통해 본사에 보내왔다.

## 校內 示威선동혐의 延大生1명을 拘束

【서울】서울西大門경찰서는 28일 교내에서 반정부시위를 벌인 白恩然양(20·延世大사학과3년)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白양은 지난25일 낮12시30분께 延世大학생회관앞에서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반정부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학생들의 시위를 선동한 혐의를받고있다.

## 卒業生에 不法모금 敎授2명 辭表수리 慶熙大

慶熙大는 28일 연구소설립기금명목으로 졸업생들을 상대로 기부금을 불법 모금, 물의를 일으켰던 한의대 文濬典교수와 李文宰교수의 사표를 수리했다.

## 새벽 가정집에 火災 漏電으로 1명燒死

28일 상오2시20분께 서울 麻浦區 東橋洞 347의20 金相律씨(49·南部세무서계장)집에서 누전으로 불이나 金씨 부인 李京子씨(47)가 불에타 숨졌다.

金씨의 말에 의하면 안방에서 가족5명이 잠자고 있는데 숨이 답답해서 깨어나보니 천장에서 연기가 새어나와 가족이 모두 대피했는데 남편 金씨가 다시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불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 容疑者J군 不拘束송치

## 女大生피살事件 殺人및 死體유기혐의 立件

상명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발생 72일만인 28일 용의자 J군(21·K대3년)을 살인및 사체유기혐의로 입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이같은 이례적인 불구속송치는 3차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한뒤 검찰의 지시에따라 취해진것이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감에따라 서울江南경찰서 宣陵파출소에 설치된 수사본부는 이날자로 해체됐다.

경찰의 송치의견에 의하면 J군은 지난 9월18일 하오 9시15분께 서울 江東區蠶室잠실아파트단지내에서 朴양을 전화로 불러낸뒤 택시에 태워 三井莊여관까지 가 정사를 가졌으며 그뒤 여관밖의 인조잔디 야적장까지함께 나와 말다툼끝에 朴양의목을 졸라 숨지게한뒤 인조잔디로 시체를 덮고 달아났다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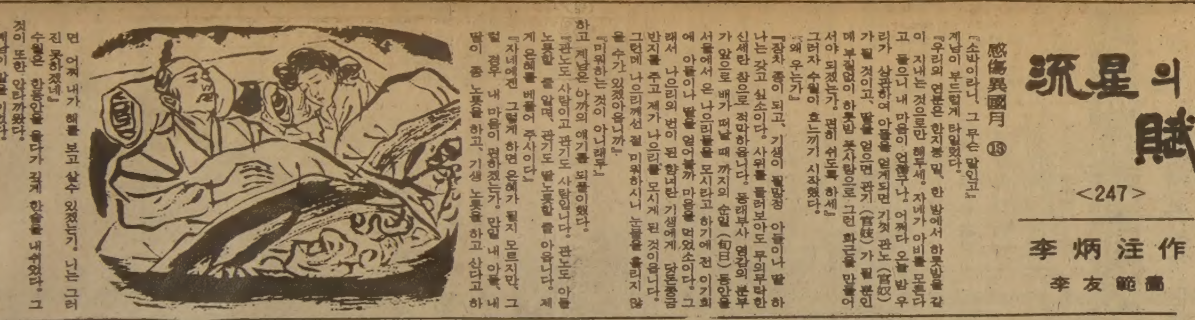
경찰은 이 의견에서 朴양의 오른쪽 뺨에 난 치흔은 정사때 생긴것으로 이마·목등의 상처와 거의 같을 시각에 생긴것으로 보여 朴양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있다고밝혔다.

검찰은 이사건을「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불구속으로한 경우는 극히 드문일로 이경우 검찰의 처리기간이 통상 3개월이어서 이기간이 지나면 장기미제사건으로 처리되므로 기소·불기소 여부는 내년2월까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流星의 賦 <247>

感傷異國月 ⑬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 내밭에 동물 <6>

■送年女流短篇

梁貴子 作 / 金光培 畵

##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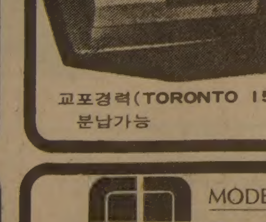
TORONTO

977-9519

##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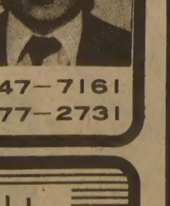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 제1회 칼빈신학교 졸업식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저희 칼빈신학교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1회 졸업식을 거행코저 하오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 소 : 갈보리 교회당(3817 LAWRENCE AVE. E.)
시 일 : 1981년12월6일(일)오후6시
졸업생 : 성서과 1명, 신과 11명

1981년11월

칼빈신학교장 계 화 삼

##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5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평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 ecosys MODERN FURNITURE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 한국警察도 적극捜査해야

## 2백만弗事件 FBI、한국측 資料요청때 對備

## 機長·銀行관계 손안대
### 國際的 범죄라고 「불구경」만

미화 2백만달러 증발사건에대한 한국측 조사가 너무 미온적이다。경찰은 한국측의 손해가 없는데다가 외환은행측의 정식 수사의뢰가 없었고 한국에 도착한 행낭과 납봉인、백지의 지질、비닐봉이 국내것이 아니어서 범행이 뉴욕에서 이루어진것으로단정、적극수사를 펴지않고 있는 것이다。이에대해 수사전문가들은 FBI가 자국내의수사과정에서 확인할수가 없어 한국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경우 충분한 협조를 하고 한국측의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도 의문점에 대한 조사를 해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現金수송용 장갑밴차 아모드·익스프레스社의 현금수송용 장갑밴차。방탄시설이 되어있는 특수차량이다。【뉴욕=金泰雄특파원찍음】

### 事件前행낭·꼬리표處理등 疑問點많아

그러나 경찰은 28일현재 지질、납봉등의 감정만 국내업자에게했을뿐 은행관계자와 KAL 조종사등에대한 내사를전혀하지않고있다。서울시경은 그동안 외환은행측으로 부터 진상보고서와 행낭、가짜돈뭉치등을 제시받아 조사했으나 사건경위를 파악하는데만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조사과정에서 범인들이 한국외환은행의 사정을 잘아는자가 관련이 돼있는것으로 보이고 또 KAL의 崔正萬기장(47)이 케네디 공항에서현송회사인 아모드·익스프레스사의 관계자로 부터 행낭을 인수받으면서 납봉인 번호를 확인하지않은 이유등 의문점 몇가지가 드러나 있다。

또 경찰의 감정결과 가짜돈 종이와 행낭은 국내제품이 아닌것이 분명히 밝혀졌으나 납봉과 꼬리표도 가짜이며 작성과정에 의문점이 많아 행낭은 송두리째 바꿔치기한것으로 보인는데 이부분에대한 조사가 전혀없다。

납봉인의 번호가 RNB에서 보관된것과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꼬리표에 기재된 외환은행의 주소와 수취인 尹凡씨는 현재의것(中區乙支路2街181)과 다른데 문제의행낭이 도착하기전에 들여온 현금행낭의 꼬리표에도 이미 현재의 주소와 수취인으로 기재돼있었다는게 외환은행측의 진술이다。

외환은행에 의하면 행낭천이 전에는 약간회색이돌고 거칠며 두꺼웠으나 가짜는흰색이며 얇고 매끄럽다는것。

또 수취인 尹씨는 지난6월부터 첫거래 1~2회때사용했으나 그뒤 외환부대리가 宋기충、鄭운견、閔右植씨로 바뀌어 이들 RNB에통보 그때그때 바뀌는 이름으로 들어왔다는것이다。

꼬리표의 기재내용은 타이핑한것이 아니고 텔렉스전문을잘라 붙였거나 복사한듯의미했으며 Korea Exchange Bank의 Korea Exchange에C자가 빠져있고 인터내셔널의 약자인 Int'l이 축약어 표시가 잘못돼 I'ntl로 표기돼있는등 권위있는 은행에서작성한 꼬리표로보기가 어렵다。

이상을 종합해볼때 범인은 지난6월께 RNB에서 보낸 행낭과 꼬리표를 알고 있거나 그당시의 것을 모조、또는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찰은 우선 종전에 도착한 행낭과 납봉 꼬리표를 현금수취후 어떻게 처분했는가 또외환은행에 송금하는 사실을 국내에서 통보한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도 일단 조사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

한편 범행이 RNB—현송사(AEI)—KAL—외환은행으로 이어지는 수송과정 어디에선가 이루어진것이라면 행낭을 상당시간 맡았던 KAL측에도 일단은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 崔機長 몰래 外國行 KAL
### 행낭引受·引繼경위 發說못하게

백지로 바꿔치기당한 현금행낭을 뉴욕 케네디공항에서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공항까지 운반했던 KAL화물기의 崔正萬기장이 27일 하오9시 보도진의 추적을 교묘히피해 사우디 KAL837편을 타고 출국했다。

崔기장은 이날 비행스케쥴에 하오9시40분 뉴욕으로출발하는 KAL098편 화물기 기장으로 나간다고 공항관계기관에 신고했다가 출발 2시간전에 비행스케쥴을 변경、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명단에는 가명으로 기재하고 사우디행비행기로 바꿔타고 나간것。

대한항공측은 사건이 보도되면서 행낭의 인수인계과정을 직접 기장으로부터 들어보려는 기자들을 『비행 나갔다』고 계속 따돌려 왔는데 이번에는 崔기장을 몰래 내보내는등 취재조차 못한 태도를 취하고있어 항공사로서 말못할 사정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데일리뉴스紙 1면톱題目에 11월26일자 뉴욕 데일리뉴스紙의 1면。2백만달러 증발사건이 톱제목으로 나와있다。

### 거래틀때 英文명함건넸다
### 가짜꼬리표 수취인尹凡씨

한편 가짜행낭의 꼬리표에 수취인으로 기재된 尹凡씨(33·사진) 외환은행국제금융부차장2계대리)는 28일『지난 2월초순께 RNB와의 거래개선을 추진할당시 RNB홍콩사무소의 섭외담당직원 2명을만나 영문으로 된 명함을 전네준적이있는데 그 명함이 유용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명함외에도 「BEOM、YOON」으로 표기된 사무실 명패를 보고 기억한수도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保衛法 폐지法案통과
### 운영위 8·3措置해제건의안도

국회는 28일하오 運營委를 열고 民正·民韓·國民등 3黨총무와 議政同友會회장등 의원83명의 이름으로 제안된「국가保衛에 관한 특별조치법廢止法案」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措置)해제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廢止法은 附則에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국가動員令의 時限附효력존속을위해 대통령의 비상사태선포권을 규정한 2條와 ▲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을 발동할수 있게한5條(1、2、4항)는 補完立法 마련을위해 82년12월31일까지 그효력을 지속하도록 규정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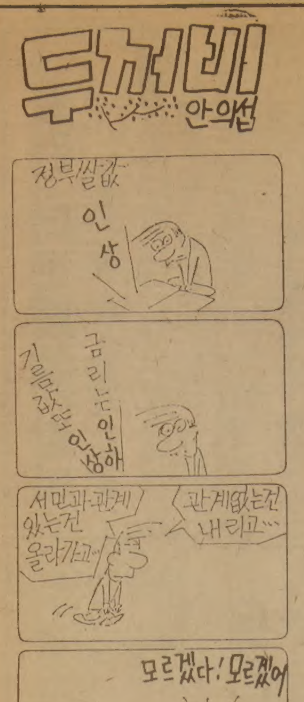
附則은 또 이경우 同명령에 위반한자에대한 벌칙(11條2項)도 이기간내에 적용되며 이법시행전의 행위에대한 罰則의적용에 있어서도 종전의 例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날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폐지법안에 관한 제안설명에서 金正禮의원(民正)은『이 법은 우리나라가 비상사태하에 있음을 전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 또는규제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금지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케함으로써 새시대를 개척해나가고자하는데 이법을 폐지하고자하는 뜻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또 이날「法令改善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法司委小委가 개정해야 합법을선정할수있도록했다。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 두꺼비 안의섭




## 土地사기 女두목등 5명令狀
### 國有地 불하미끼 巨額詐取
### 傳統문화회관 유령단체로 承認書위조

치안본부수사대는 28일 조직적인 토지사기단의 여두목 李康玉씨(49·일명李春子)와 李宗男(47·전과7범)、鄭槿奇(55·전과3범)、鄭炷永(49·전과3범)、河龍秀(50·전과3번)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서울鍾路區堅志洞87의1 진우빌딩402호에 한국전통문화회관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후 총무처장관명의의 국유지불하승인서를 위조、갖고다니면서 서울江南區三成洞 308의1 60억원상당의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준다고속여 지난 6월15일 서울鍾路區唐珠洞 正實건설대표 金白萬씨(62)로부터 6천5백만원을 사취한것을 비롯 韓鳳學씨(48·상업·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와 李■九씨(56·서울恩平區葛峴洞)등으로부터도 각각 3천만원과 2백여만원을 뜯어냈다는것。

이들은 또 부산태창기업대표 權建雨씨(47)와 韓白龍씨(48·서울永登浦區永登浦洞)에게는 鷺梁津수산시장 임대운영전을 얻어 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과 2백만원을 편취하는등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사취한혐의를 받고있다。

## 크릴새우漁場조사 南氷洋으로出港
### 대호遠洋서

【釜山=聯】남빙양크릴새우어장 제2차시험조사선인 대호원양산업소속 제707대호호(3천2백톤·선장 周弘培·49)가 28일 상오11시미개척분야의 수산자원확보와 어장개척을위해 釜山港을 떠났다。

이 시험조사선은 내년3월9일까지 1백일동안 남위60도 이남 동경55~95도까지의 남빙양에서 크릴새우의분포·수익성등 원양업계의 남빙양진출에 대비한 최종 시험을 끝낼 예정이다。

이번 시험조업에는 국립수산진흥원 林璂奉연구관을 조사단장으로 4명의 연구팀과 선원85명등89명이승선했다。

남빙양 새우크릴어장조사는 지난78년12월 남북수산소속남북호가 50억톤규모의 새우어장을 개척한뒤 기업성타당여부를 가리기위해 두번째 시험조업에 들어간 것이다。

## 文敎部 大學등록금 一律납부制 개선
### 申請學點따라差等制

문교부는 대학의 등록금제도를 현재의「學期制」에서「學點制」登錄金제도로바꾸기로하고 이에따른 세부시행지침을 마련중이다。학점제등록금제도는 매학기마다 같은액수의 등록금을·일률부과하는것이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수강신청을 한 학점수에따라등록금에 차이를두는 제도이다。

27일 문교부관계자는『그동안 문교부와 대학측의 공동검토결과 학점제 등록금제도를 새로도입하기로 원칙적인결정을 봤다』고 말하고『남은문제는 실시에따른 몇가지 기술적인 조치』뿐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그동안 대학의등록금 제도가 학기제로묶여있어 1~2학점이 모자라 졸업을못하는경우에도 이를위해 한학기등록금을 전부내야하는 모순이있었다』고 지적하고『새제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수강신청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에 차이를 두는제도』라고 설명했다。

## 韓國戰참전 英陸軍탱크
### 汝矣島전시장서 寄贈式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英國육군의 센추리온 탱크(사진)의 기증식이 28일 상오10시 丁來赫국회의장과 池甲鍾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J·A·L모건 주한영국대사、주한외교사절및 유엔군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汝矣島종합안보전시장에서 열렸다。

유엔한국참전국협회가 6·25참전용사출신인 하라·호크리대장을 통해 英國국방성으로부터 기증받은 센추리온탱크는 6·25당시 英國軍제29여단과 함께 한국전선에 투입돼 전공을 세웠다。

이탱크는 기증식 직후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다。

## 종업원 전화로불러 빈商店서 現金털어

【金泉=聯】慶北金泉경찰서는 28일 사무실또는 상점을 지키는 주인과종업원등을 밖에서 전화를 걸어 옆집으로 유인한뒤 현금을털어온 秦炯滿씨(25·釜山市西區東大新洞3가254)를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金仁培씨(25·주거부정)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전과5범인 秦씨등은 지난 26일 낮12시20분께 金泉시 富谷1동 398 삼립식품 대리점에서 경리직원 李은주양(19)혼자 사무실을 지키고있는것을 확인한후 金씨가 인근 공중전화에서 대리점옆집으로 전화를 걸어『대리점전화가 고장이 났는지 연락이되지않으니 직원을 좀 바꾸어달라』고李양을 유인、『빵을 구입하려한다』는등 시간을 끄는사이 秦씨가 빈대리점에 침입、현금53만9천7백원이든 금고를들고 달아나다 李양의신고로 붙잡혔다는것。

## 목욕탕집 우물에 5歲어린이 溺死

【忠武=聯】27일하오7시께 경남固城郡固城邑松鶴洞263의5 무학목욕탕 우물에 이목욕탕집 보일러공 李만가씨(29)의 장남 병욱군(5)이 빠져숨져있는것을 李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李씨에따르면 병욱군이 어두워 졌는데도 집에돌아오지않아 목욕탕주위를 살펴보니 우물속에 숨져 있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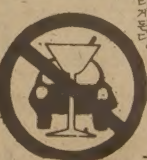
## 2m64 세계最長身 籠球선수
### 수단의「하산」…中共의 穆鐵柱보다 24cm더커

세계 최장신 농구선수인 수단의 국가대표선수 하산(22)。그의 신장은 2m62cm。

지난10월21일부터 3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제28회 세계군인 농구선수권대회에 출전、게임당 평균30점을 올리며활약、눈길을모았는데 이대회에서 하산군의 활약에 힘입어 美國、韓國、시리아、사우디아라비아에이어 당당5위를 차지했다。

바닥에서 림까지의 높이는 3m50cm인데 하산군이 뒷꿈치만 들어도 머리가 림에닿을정도이며 팔길이까지 합하면 림을 60여cm나 지나치게된다。

그동안 세계 최장신은 中共의 穆鐵柱로 2m38。穆선수보다 무려24cm나 더크다。하산군의 옆에있는사람은 韓國선수단을 이끌고 대회에 참가한 韓광수감독으로 그의신장은 1m70。韓國人으로서는 그리작지 않은 신장이나 하산군의 허리정도에 머물고있다。【27日=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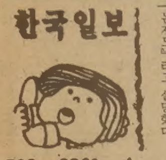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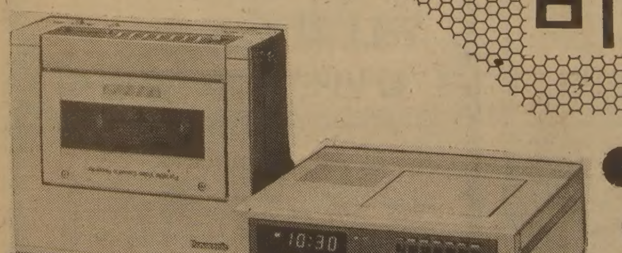
## 대회經費 감당못해 隔年制대회로 바꿔
### 스칸디나비아 卓球

【파리=李廷元특파원】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권위있는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대회가 엄청난 대회경비를감당치못해 올해 24회대회를마지막으로 연례대회에서 격년제대회로 변경된다。

대회조직위는 82、83년 대회는 열지않고 84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키로 결정、이에따라 자유대회는 3년후에열리게된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한국일보

533-2361~4

"비데오 테프 세일"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 and Add-on Recording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 799.00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 : 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FINCH AVE W. / WESTON / HWY401 / HWY400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SCARBOROUGH, ONTARIO
282-2820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보, 내신이 어디에 있지?!" "늦은데 신을 찾을수가없어!" "지금 신고 계시잖아요" "이제 서류가방만 찾으면 된다구!"

# 종합 選手權차지

## 蘇 신예 코롤레프 體操史上처음

【모스크바27日UPI·聯合】蘇聯의 신예 유리·코롤레프(19)는 27일 81년도 세계체조선수권대회 남자개인종합에서 동료 보그단·마루츠(21)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끝에 0·25점차로 승리, 종합 118·375점으로 첫 세계체조 개인종합 선수권을 차지했다。보그단·마루츠는 이날 철봉위에서 2重소머솔트(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상하좌우회전을 일으킴)의 묘기를 보인데 이어 3重소머솔트로 착地, 이번대회 최고인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안마에서 근소한 차로 코롤레프에 뒤져 종합118·350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蘇聯은 이로써 남녀단체전과 남자개인종합에서 모두 3개의 金메달, 1개의 銀메달을 따냈다。76년 몬트리올 올림픽개인종합 金메달리스트인 알렉산더·디티아틴은 마루운동중발목부상으로 경기를 포기, 최종순위 36위에 그쳤다。

# 安益泰씨미망인 롤리타女史 내한

# 『男便나라서 살고싶어요』

## 「코리아幻想曲」제작 한국人관심에 감동 마음은 언제나 韓國 머물러

◇『한국에서 살고싶다』고 말하는 安益泰씨의 미망인 로리타여사(右)와 큰딸 엘레나여사。

『한국사람을 보면 모두 남편같고 아들같이 느껴져요。우리 산女는 한국인입니다。한국에서 살고싶어요』

KBS의 특집드라마「코리아환상곡」의 시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故安益泰씨의 미망인 로리타여사(63·산명 돌로스·에스탈라베라)와 장녀 엘레나여사(33)는「남편의 나라」「아버지의 나라」를 찾은 감회에 젖어있다。

『남편에대한 한국사람들의 이같은 깊은 관심에 감동했읍니다。더우기 남편의 일대기를 TV드라마로 제작까지 했다니…』

그는 외국에서의 오랜생활끝에 모국에돌아온듯 그렇게 감격스러워한다。

로리타여사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세번째。딸 엘레나는 한국이 처음이다。

로리타여사에겐 함께온 장녀 엘레나외에 아나·세실리아(28) 레오노르(27)등 출가한 세딸이있다。『한국사람이기때문에』한국적은 포기하지 않았다고한다。그러나 최근『셋째딸이 직장에 나가기위해 국적을 스페인으로 바꿨어요。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한국인이지요』그동안 한국정부의 보조금과 딸의 번역활동으로 생활을 꾸려왔으나 직장을 갖기위해 할수없이 국적을 바꾸게되었다고 설명한다。

安益泰씨는 갔어도 그의 명성은 스페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전한다。따라서 그는 고향이고 安씨와의 추억이 담긴 팔마市(인구30만명)에선「안선생부인」으로 불리고「안익태거리」도 있다고 한다。安씨는 그곳시장이 은메달을준 단 한사람의 외국인이다。

『한국을 영원히 사랑합니다。한국이 끝없이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KBS교향악단이 팔마에서 공연하기를 바랍니다』

로리타여사는『남편은 죽을때까지 고국에 가고싶어했다』고 安씨의 생전을 회억하면서『앞으로 여건이 되면 남편의 나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남편곁에 묻히고싶다』고 한다。

로리타여사 모녀는 8일동안 한국에 머물예정이다。【彥】

# 골프包含 21種目결정

## AGF總會폐막 OCA創設등 議題마무리

【뉴델리27日=聯合】아시아경기연맹(AGF)총회는 86년 아시아경기개최지로 서울을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스포츠기구 OCA(아시아올림픽협회)를 창설키로 하는 등 중요의제를 마무리지은뒤 27일하오(현지시간)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AGF총회는 27일 82년 아시안게임의 개최종목을 놓고 다시 논란을 벌인끝에 첫날 제외키로했던 골프를 다시포함, 21개경기종목을 치르기로했다。

메타 아시아경기연맹사무총장은 모든 AGF회원국들은 내년에 상설되는 OCA에 가입할 자격이있으나 가입여부는 회원국 4분의3이상의 승인이 있어야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이렇게 될 경우 이스라엘은 아랍과 기타 아시아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사무총장은 이번 AGF총회에 참석한 26개국은 자동적으로 OCA창설회원국이 되며 OCA는 앞으로 1년후인 82년말 印度에서 개최되는 제9회 아시안게임부터 활동을 시작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는 이스라엘 라오스 베트남 버마 캄보디아 싱가포르등 6개국이 불참했다。

## 월드컵배구 蘇優勝

【東京27日AP=聯合】소련은 27일 도오꾜에서 속행된 월드컵 남자배구대회 결승리그에서 이탈리아를 3—0으로 완파함으로써 남은경기의 승패에 관계없이 우승이 확정됐다。

8강으로 압축된 결승리그에서 소련은 이날 이탈리아를 맞아 시종 우세한 경기를 벌인끝에 15—6、15—5、15—9로 낙승했다。

## 星港 골프회원 加入費 3천 3백30만원까지

【싱가포르AP=聯合】싱가포르의 주요 골프클럽들은 요즈음 회원가입비를 일제히 올려 심한 경우 준회원비가 美貨로 4만7천6백달러(약3천3백30만원)에 달하게됐다고。

이 나라에서 제일 회원비가 비싼것은 센토사클럽으로 정평나있는데 준회원비를 종전의 1만6천달러에서 4만7천6백달러로 거의 3배나 올리면서 정회원비도 종전의 8천달러에서 2만3천5백달러로 인상했다는 것。주롱컨트리클럽도 준회원비와 정회원비를 3만3천3백30달러와 5천7백달러로 각각 인상했다。

## 올림픽支援法제정 國會방침

국회는 88년 세계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 올림픽 단체에 각종 稅制지원등 혜택을 주기위해 議員立法으로「올림픽추진준비위원회 支援法(假稱)」을 제정할 방침이다。28일 국회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정부측과 협의추진중인 이법안은 서울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추진단체에 附加價值稅、所得稅、最低限稅(5%)면제등 세제혜택을 주고 企業이 올림픽추진단체에 出捐한 금품을 損費로 처리토록 하고있다。

# 亞洲스포츠 革新

## AGF、OCA 代替로

### 常設기구로 모든國家 참가 / 東西南亞·南東亞등 구분 / 會長·事務局싸고 論難예상

아시아스포츠계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지난 32년간 아시아스포츠를 이끌어온 아시아경기연맹(AGF)이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AGF총회가 창설키로한 OCA는 상설기구일뿐 아니라 집행위원회에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참가할수있는 대규모의 스포츠단체이다。라자·싱AGF회장이 지적했듯이 이는 아시아스포츠계로서는 하나의 혁신이다。

기존의 AGF는 아시안게임개최국이 회장국으로 되었으며 일부 국가만이 집행위원국이 되어 각종스포츠업무를 처리했었으나 새로 창설되는 OCA는 한도시에본부를 두는 상설기구이다。

OCA의 집행위원회는 34개회원국대표 1명씩 참가할수있으며 투표권은 없지만 아시아종목별 스포츠연맹(ASF)에서도 1명씩의 대표가 참가해 구성된다。한편 총회는 각국에서 3명씩의 대표가 참석할수 있게 되어있다。

OCA의 특이한점은 아시아를 동·서·남아시아및 동남아시아등 4개지역으로 구분해 각지역에서 1명씩의 부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OCA는 당초 78년 방콕아시안게임때 논의되었던 SCSA(아시아스포츠최고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자 이를 대체해서 발족된것이다。

OCA는 이번에 명칭과 원칙만 통과되었을뿐 발족은 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이후에나 이루어질것으로 보이지만 회장단의 선거、사무국 위치문제등은 다소 논란이 예상된다。【뉴델리27日=聯合】

# FBI의「超能力」

## 2百萬弗 사건계기로 알아본 수사력

# 情報網·수사장비 동원등 엄청나

## 特別수사관 9천5백명…지문자료 2억개

## 政治·經濟·戰爭·쿠데타까지 미쳐

◇FBI요원들이 사격장에서 83구경권총으로 사격훈련을 받고있다。

미연방수사국(FBI)。우리귀에도 낯선 이름이아니지만「보이지않는 나의 정부」로 유명하다。또한 이름이「수사국」이지 때로는 외국의 정치、경제、전쟁、쿠데타에까지 개입하는 범세계적인기관이다。미화2백만달러 증발사건을 계기로 미국 버지니아주 관티코에있는 FBI아카데미에서 3개월간 수사간부 교육을 받고온 金光植경정(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을 통해 FBI의활동상황을 살펴봤다。

金경정은 FBI활동중 특히 수사부분에대해『수사의 출발은 한국경찰과마찬가지지만 증거수집등 수사과정에서 FBI가 활용할수있는 정보원이나 수사기자재、예산지원등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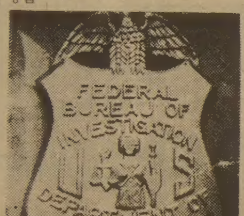
즉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주변、피해자 주변、동일숫법전과자 중심등으로 수사를펼치는것은 마찬가지。이때까지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추리력이 가장 필요한것。그러나 수사방향이 좁혀지면 정보、장비、자금지원이 뛰어난쪽이 손쉽게 범인을 체포할수있다는 것이다。

이번 2백만달러 증발사건에 있어서도 FBI는 이같은 원칙에따라 미국최대(?) 퍼블릭·내셔널·뱅크(RNB)와 국제외환은행사이의 달러구매과정을 잘알수있는 위치의 인물이나 현금수송과정을 잘알수있는 사람들에대한 수사는물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수있는 조직이나 전과자에 대해서도 수사를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용의자나 단서가 드러나면 FBI는 지니고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범인검거에 나설 것이라는것。

FBI가 사건해결을 위해서 자금지원을 아끼지않는다는 것은 다음사건에서 잘 알수있다。

지난 76년 5월께 FBI는 늘어난 도둑、노상강도등 각가지 범죄를 소탕하기위해 장물취급회사를 설립、5백명의 FBI요원과 경찰에게 경영을맡겼다。



◇FBI의휘장。세계적인 수사력을자랑하는 FBI가 2백만달러 증발사건을 맡고있어 귀추가주목된다。

FBI는 이 위장장물취급회사를 5개월이나 운영하면서 각종범인으로 부터 장물인 텔리비전、자동차、수표、귀금속、심지어는 소형총기류까지 사들이면서 단골고객(?)들의 명단을 파악해두었다。

작전이 끝나자 FBI는 어느날 저녁 그동안 회사를 이용해줘 고맙다는 구실로 파티를 개최、파티장에 들어서던 도둑과 장물아비등을 검거했는데 그숫자는 7백50명이상이었다는 것。

당시 신문들로 부터『영화「스팅」을 실현한 FBI의 작전』평가를 받았던 이 공작에서 FBI가 도둑들로 부터 사들인 장물은 3천5백점 2백40여만 달러어치였다니 도둑들에게 지불한 돈의 액수도 엄청났을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밖에 FBI가 이용하는 수사장비나 정보망이용이나 자금등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FBI가 창설된것은 1908년。당시 일반 수사국으로 설립됐다가 1935년 현재의 연방수사국으로 개편됐다。각주와는 관계없이 연방전체의 수사기관으로 활약하고있는 FBI에는 특별수사관9천5백명、일반직원8천명의 인력이 있으며 지문자료만도 2억개에 달한다。

철저한 점조직형태로 운영되는 FBI는 구체적인 수사력이 특출키로 정평이 나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확실한것 이외에는 외부에 밝히지 않는것도 특징。

FBI의 조직은 계급대신 국장、부국장、분야별책임자와 스페셜 에이전트로 불리는 실무자등 4단계로 구성돼있는데 실제 수사를 하는 스페셜에이전트들은 사건에따라 구성된 팀을 이루게되며 이때 팀장은 제일 고참인 스페셜에이전트가 맡게된다。

예컨대 영화에서나 볼수있던 이야기이려니와 세계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FBI의 수사결과에 기대어본다。【鄭秉鎬기자】

# 金龍鎬등 33명가려

## 아마복싱選手權 준준決勝에 진출

제35회전국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겸 제10회아시아선수권대회(82년3월·서울)파견대표선수 3차선발전이 28일 奬忠체육관에서 속행、金龍鎬(동아대)등 33명의 준준결승진출자를 가렸다。

金龍鎬(동아대)는 이날 페더급2회전서 처음부터 적극적인공세를 편끝에 라이트훅으로 朴品植(화랑권투)의 복부를 강타、1회 1분39초만에 KO승을 거두었다。

한편 김상수(서부권투)는 밴텀급2회전서 정기철(경흥체)을 일방적인공격끝에 1회에 한차례 다운을 빼앗고 2회2분안초만에 기권승을 거두고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 우리나라 溫突은 高句麗시대부터

## 國立民俗博物館 학술강연회

### 高麗朝들어 전국에 普及 / 서민 계층서 上流層으로 / 現存 가장오랜것 烏竹軒

우리나라 전통 주택의 大構造의 하나로꼽히는 온돌(溫突)은 高句麗시대 가난한 일반서민들사이에서 발생돼, 百濟나 新羅로 점차 전파되고 高麗와 朝鮮朝에 와서야 모든 계층에 퍼져 쓰였다。국립민속박물관은 28일 하오2시「우리나라의 온돌」을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열어 온돌의 역사를 살피는「온돌의 기원과 변천」(朱南哲·高大工大建築공학과교수)、온돌의 열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풀이하는「온돌의 열효율 특성」(金炳國·국제열관리연구소장)등 2編을 마련했다。

◇현존하는 住宅遺構中 가장오래된 온돌을 지키고 있는 건물의하나인 江陵烏竹軒。

朱南哲교수는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에 의거、우리나라 온돌의 역사적上限線을 4세기말이후로 잡고、문헌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기록으로『舊唐書』卷1백99上列傳1백49高麗條에 적힌『가난한 사람들 즉 貧寶者들은 대부분 겨울에는 장갱(長坑)을 만들고 불을 놓아 그 아래를 덥게했다』는 부분을 소개한다。또한 이 기록에는「佛事」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온돌은 佛敎가 들어온 고구려 小獸林王2년(AD372)이후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百濟의 경우、주택에 관련된 문헌자료가 많지 않아 분명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三國遺事」卷2南扶餘前百濟北扶餘條에『그 돌이 저절로 따뜻해 지므로 이를 煖石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온돌이 사용된 흔적을 보이고있다。그러나 新羅에서는 어느 문헌에서도 온돌을 지칭할 만한 부분을 찾을수 없고、「三國史記」에『경주의 民家들이 잡초이나 숯으로 밥을 지었다』는 부분이 발견돼 온돌의 존재를 부정하는 면을 보이기도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新羅에 온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단정할수는 없다。朱교수는『온돌문화가 긴 北쪽지방으로부터 온돌이 발상돼、남쪽지방으로 전파됐다는 점은 입증할수있으며、統一新羅시대를 지나 高麗시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보급되고、계층면에서도 서민계급에서 상류계급까지 널리이용됐을것이라고 설명한다。

高麗시대의 온돌사용을 알려주는 문헌으로는 崔滋(AD1188~1260)가 남긴「補閑集」을 들수있다。「補閑集」卷下에 平安北道寧邊에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數行者의 행적에 관계된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이부분에 방을 덥게 하는 온기들(溫其突)이라든가 불구(燉口)등의 단어가 자주 나타나있다。이밖에 李奎報의「東國李相國集」과 李齊賢의「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당시보다 1백여년 이전인 高麗末期의 상황을 전하는 부분에서 방아래『煖堗』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高麗를지나 朝鮮에 들어오면 온돌은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간에 전파돼 상류계급에서나 서민계급에서나 온돌을 주택구조에서 가장 중요한부분으로 여겨왔다。朝鮮의 온돌구조는 中期이후에 지어져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그 온돌을 고찰할수있다。현존하는 조선온돌중 가장 오래된것은 江陵市의 烏竹軒의 온돌로、이것은 AD1452년에 벼슬에올라 兵曹參判과 大司憲을 지냈던 崔應賢의 古宅이다。후일 이 軒의 온돌방에서 李珥가 탄생하게 된다。

朱교수는『온돌은 4세기말 발생、점차 퍼져 나간 한민족 특유의 난방법、건축구조법으로 대단히 잘 고안된 오랜 역사를 지닌것』이라고 말하고『에너지자원이 없는 한국의 현편으로는 온돌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량해서 유구한 역사를 지켜온 온돌을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교 회 안 내

| 교 회 명 | 담임목사 | 예 배 시 간 | 주 소 | 전 화 |
|---|---|---|---|---|
| 가나안교회 | 이 정 준 | 주일오후 1:30 |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 244-2301 742-7010 |
| 갈보리교회 | 안 병 한 |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 3817 Lawrence Ave.E. | 755-7979 431-3635 |
| 고신장로교회 | 최 사 철 |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 148 Thornridge Dr Thornhill | 241-4546 |
| 대한교회 | 강 근 환 | 주일오후 1:30 | 3819 Bloor St.W. | 741-5411 |
| 순복음교회 | 이 필 주 |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 1 King St. Weston | 881-7162 247-9577 |
| 동부한인장로 | 홍 순 관 |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 251 Christie St. | 530-1142 530-1143 |
| 딕시한인장로 | 차 주 성 |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 279-4356 279-6388 |
| 런던제일교회 | 장 희 선 | 주일 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 135 Briscoe st. E. |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
| 런던한인교회 | 신 용 규 |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 530 Topping Lane London | 473-5257 686-0224 |
| 성도교회 | 김용진, 정춘수 | 주일오후1시30분 | 87 Elmhurst Dr. | 745-7370 |
| 반석교회 | 양 세 주 |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 2840 Weston Rd. at Albion | 746-5010 |
| 벧엘교회 | 최 상 봉 |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 395 Old Yonge St. | 496-2967 221-1382 |
| 빌라델비아 장로 | 김 경 진 |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 281-5706 |
| 새예루살렘교회 | 김 승 환 |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 5 Grenoble Dr. Don mills | 429-1430 429-2685 |
| 새한장로교회 | 김 상 호 |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 105 Wilson Ave. | 482-4577 633-3132 |
| 서머나감리교회 | 박 준 하 김 옥 희 |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 675 Sheppard Av.E. | 751-3611 752-9860 |
| 선교교회 | 안 상 엽 | 주일 낮1 00 저녁 7:00 | 1 Greenland Rd. (Donm ills) |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
| 대한수도원 | 조 권 사 |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 100 Lawlor Ave. Tor. | 698-5363 |
| 평신도복음선교회 | 선 교 회 | 예배 주일오후 2:00 | 2501 Warden Ave. | 298-9031 |

| 교 회 명 | 담임목사 | 예 배 시 간 | 주 소 | 전 화 |
|---|---|---|---|---|
| 성산교회 | 계 화 삼 |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 65 Mayall Ave. Downsview | 977-3202 |
| 순복음카나다 | 조 이 식 |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 1030 Albion Rd. | 745-3884 743-4813 |
| 에덴침례교회 | 정 태 진 | 주일오후 2:00 | 1272 Weston Rd | 242-4964 |
| 영락교회 | 김 재 광 |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 126 O'conner Dr. at Pape Ave. | 423-8400 423-9880 |
| 오순절장로교회 | 장 세 택 |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 오후 4:00 | 754 Indian Rd. | 762-1495 |
| 임마누엘교회 | 조 창 환 |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 63 Dunblaine | 488-4141 |
|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 여 용 순 |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 2385 Warden Ave. | 444-8343 497-7122 |
| 제일장로교회 | 김 용 출 |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 963 Pharmacy Ave. | 755-9766 755-1528 |
| 제7일안식일 | 박 형 종 |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 255 Finch Ave. W. | 630-4284 |
| 중앙장로교회 | 정 관 일 |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 502 Bathurst | 전화설교 961-8361 |
| 천주교회 | 고 종 옥 |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 83 Power St. Tor. | 863-0415 |
| 침례교회 | 홍 신 용 |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 720 Ossington Ave. | 531-7604 |
| 충현교회 | 박 경 남 |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 240 Manor Rd. | 281-7772 245-1687 |
|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 | 주일오후 1:30 | 54 Queen St.N. Kitchener | (519) 579-1819 |
| 펜티코스탈교회 | 심 상 대 |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 300 Queen's Dr.Tor. | 223-1914 |
| 한인교회 | 유 재 신 | 주일오전11:00 낮12:30 | 353 Sherbourne St. | 922-3863 |
| 한인장로교회 | 박 희 민 |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 1183 Davenport Rd. | 535-6864 532-2121 |
| 해밀턴연합 | 김 낙 종 |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 1570 Main. W. Hamilton | 627-4329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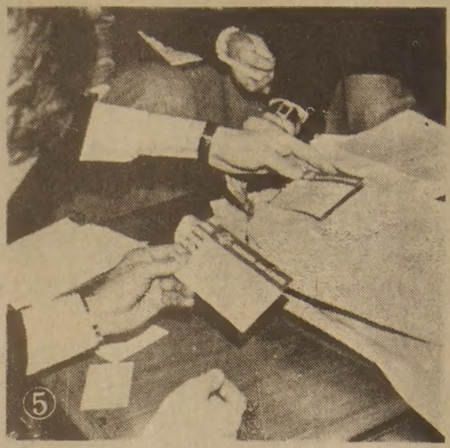
# 2百萬弗의 變身…확인 12場面

◇캐비닛 열고 캐비닛속에 넣어둔 행낭을 확인하기위해 은행원이 경찰관입회아래 캐비닛을 열고있다。

◇캐비닛속 행낭 개봉하지 않은 4개 행낭과 도착첫날 개봉해봤던종이뭉치행낭(맨위)이 캐비닛속에가지런히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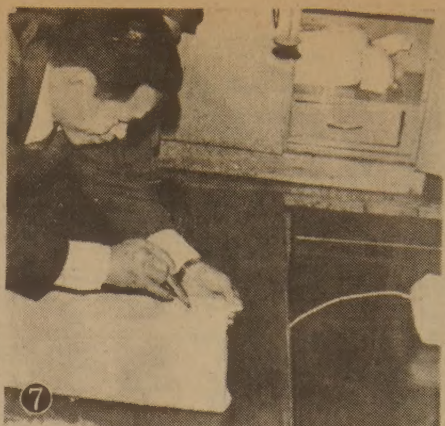
◇무게를 측정 행낭을 한개씩 저울에달아 무게를 측정하고있다。

◇납봉인 점검 홍콩에서 급거내한한 리퍼블릭 내셔널은행 홍콩주재이사 커트·앤더슨씨가 행낭의 납봉인을 점검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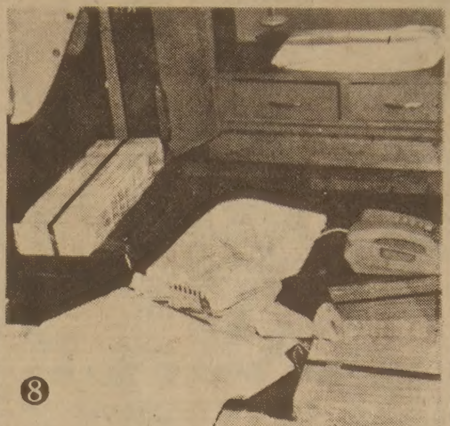


◇꼬리표 확인 KAL의 화물 꼬리표와 탁송은행의 꼬리표를 확인하고있다。

◇관계書類 확인 개봉에 앞서 관계서류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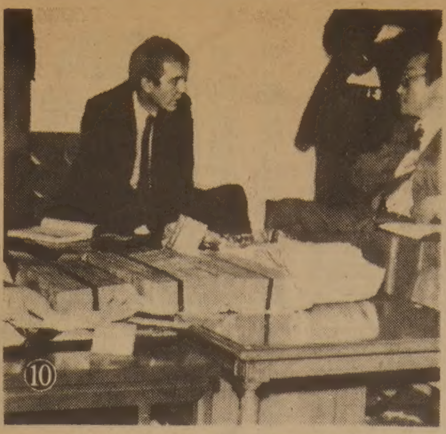


◇행낭 칼로갈라 행낭을 칼로 쪼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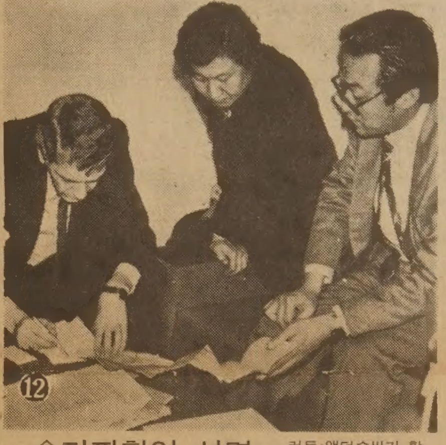
◇종이다발 달러 다발처럼 가지런히 잘라 묶어논 엷은 청색의 종이 다발。4개의 행낭속에서 1다발씩이 나왔다。

◇경찰확인 입회 경찰관이 확인결과를 밝히는 서류에 서명하고있다。



◇책상위 진열 커트·앤더슨씨가 4개의 행낭속에서 나온 종이다발을 책상위에진열, 최종 확인한후 외환은행관계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심각한 表情들 행낭점검을 끝낸 커트·앤더슨씨가 심각한표정을 지으며 외환은행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옆에 입회경찰관들도 확인결과를 정리하고있다。



◇가짜확인 서명 커트·앤더슨씨가 확인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고있다。

## 貞節과 忠節의 一片心

## 粧刀전시회

### 無形문화재 朴龍基씨

### 첨사·팔각刀등 百여種 2百여點

### 14歲때 佩刀 첫製作…외길36年

"祖上들의 깊은뜻 사라지는것 안타까와"

粧刀(佩刀)는 貞節刀 또는 忠節刀라 한다。여자에게는 貞節刀요、남자에게는 忠節刀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의 옷 고름에 乙字粧刀를 정성껏 매주고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았다。『가문의 명예와 정조를 지키는데 쓰거라。그렇다고 함부로 빼지말고 고이간직하여라』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하고 목아은 아들이나 벼슬길에 나서는 아들에게 粧刀를 주었다。마음을 무겁게 갖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런 一片心의 뜻을 간직한 粧刀의、우리나라에서 단하나뿐인 중요무형문화재(60호) 朴龍基씨(50·전남光陽郡 光陽邑 龍山里 385)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롯데쇼핑센터에서 첫 전시회를 갖는다。외길 36년만에 갖는 조그마한 자기 정리다。

『요즘은 粧刀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갈수록 粧刀가 지닌 깊은 뜻이 없어지는 것 같아 마음아파요』

생애 처음 갖는 전시회의 소감에 애수가 서렸다。옛날에는 남녀 누구나 粧刀만 보아도 마음가짐을 달리했는데 이젠 그런 붉은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다。

『4년전부터 전시회를 준비했지요。공부도 되고 후계자양성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했지만 점점 사라져가는 粧刀의 뜻을 알리고 싶었읍니다』

36년만에 갖는 첫전시회에서 「시골匠人」인 그로서는 수줍음이 앞선다。朴씨는 14세때 光陽邑 七星里 張益成노인에게 佩刀만드는 것을 배웠다。七旬의 張노인은 말년에 얻은 제자를 끔찍이도 사랑했다。

光陽은 예부터 佩刀의고장으로 이름나 있었다。이 고장서 粧刀가 만들어진 것은 고려때부터라고 전한다。예부터 면면히 이어온 粧刀의 얼이 張益成노인을 거쳐 朴씨에게 맥락이 닿은것이다。

『그 어른은 인자하면서도 엄했어요。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배우려거든 귀신도 놀라도록 깊이 배우라고 꾸짖었어요』

粧刀는 첨사도·팔각도·사각도·을자도·원형도·맞배기칼로 나누어진다。크기도 각각 다르다。남자용중 큰것은 全長16·6㎝ 刀身4·5㎝、부녀자용은 全長9㎝ 刀身4·5㎝가 대부분이다。

칼집과 칼자루는 금·은·烏銅·白銅·黑柿·棗木·梨木·檀木·黃陽木·竹節·산호·무애·象牙·犀角·牛骨·玳瑁·호박·玉·비취등을 썼다。칼날은 강철로 刀身에 「一片心」또는 「直千金」등을 文樣化해서 흘림으로 새겼다。

『옛것을 되살리고 옛뜻을 알리기 위해 4년동안 심혈을 기울였읍니다。하나라도 더 옛것을 재현하려 서울의 인사동골목, 박물관등을 헤맸지요。粧刀는 예부터 고이 간직한 것이라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이번에 선보이는 粧刀는 1백여종에 2백여점。十長生紋銀粧첨사도、華角銀粧四角刀、華角銀粧갖은맞배기刀、白玉金銀粧갖은乙字刀、白玉銀粧첨사도、黃玉金銀粧八角刀、靑玉金銀粧八角刀、烏銅入絲一片心紋金銀粧갖은맞배기刀、烏銅入絲螺鈿갖은맞배기刀、螺鈿꽃음질銀粧四角刀、七寶銀粧乙字맞배기刀、樺榴山水透刻紋銀粧첨사도、박달鸞鳳紋銀粧첨사도、十長生紋金銀粧갖은乙字刀등지금남아있는 粧刀의 유형이 거의 망라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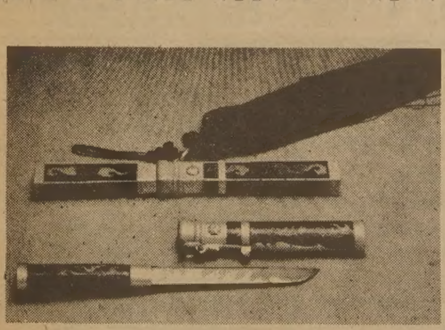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의 특이한 점은 중요무형문화재10호 金鳳龍씨、35호 金哲?씨와 玉匠張周元선생님이 저에게 창작품을 만들수있는 기회를 주신것입니다。이길을 한눈 팔지말고 계속 걸어가라는 격려로 알고 있읍니다』

78년 중요무형문화재60호로 지정된 朴씨는 요즘도 세제자와 함께 하루 8시간씩 8백도의 쇠와 씨름한다。빠를때는 3~4일、늦으면 한달에 한개씩 조상의 얼이 서린 粧刀를 만들어 낸다。

정부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준 것도 묵묵히 粧刀의 맥락을 이어가라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깊은결의를 보인다。

【李炳日기자】

◇외길 36년만에 첫 전시회를 갖는 중요무형문화재60호 粧刀匠 朴龍基씨。



◇華角銀粧四角刀(上)와 華角銀粧 갖은맞배기刀。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 서울 사대부고 망년 파티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 프린스 호텔1층 "프린세스룸"
YORK MILL & DON MILLS
회 비 : $40.00(커플), $25.00(싱글)
※COCKTAIL,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 백 이 삼—251—6578
김 강 옥—298—4232
송 광 호—533—2364

●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 한인업체를 도웁시다 !

많은 한인업체들은 불철주야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경영난에 부딪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굳게 모아진 힘으로

한인업체를 키웁시다.

한인업체의 경제적 발전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533-236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KEELE & WILSON 지역 가게에서 일할 경험자.
FULL OR PART TIME HELPER 구함
☎ : 221－2084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파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지역이면 좋음)
☎ : 267－4770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일요일 헬퍼구함(여자) (12시～저녁8시)
921－0624(다운타운소재)

동업자 구함
아주적은 투자로서 좋은 사업 할 수 있음.
한국서 고졸이상자의 학력 소지자로서 캐네디안과 충분한 대화를 할수있는 인격을 갖춘분 환영함.
☎ : 962－0019

●레스토랑에서 일할분(FULL TIME)
●좋은 대우
☎ : 486－1112(후랭소와)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PLUS2베드룸 아파트 매매
스카보로에 있음. 최저 주매상 : $2,500
보증하고 $4,000으로 올릴수 있음. 좋은리스.
GLORIA GRANT 나 NINA WARREN에게 연락요.
☎ : 694－3336, 690－9983
FAMILY TRUST CORPORATION REALTOR.

건물및GROCERY STORE 매매
매상 : $3,500～4,500
☎ : 535－0028(MR. KIM)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29000
☎ : 423－9899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매 매
자개애기 3층장, 나비장, 자개상.
☎ : 661－4581

① 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 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③ 그로서리(연매상 $700,000, 주6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나스샵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TUCK SHOP
HAMILTON 소재 1600 SQ. FT.
RENT : $350 5½YR 10YEAR OPTION
APARTMENT COMPLEX에 위치한 유일한 TUCK SHOP임.
현월수 순수익 : $4,000보장.
10시～10시사이 (MRS. 전)
☎ : 1－662－4705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억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 집·방세·하숙

다운타운 가게 세 놓습니다.
채소및 꽃가게 하실분을 찾습니다.
☎ : 365－1489

##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R)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미 용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동.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87NORFINCH DRIVE, DOWNSVIEW.

## 꽃 집

크로스웨이(구 글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옥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50% OFF)
☎ : 465－8167 (MR. 김, MR. 곽)

##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헌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9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지마구찌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한 국 일 보 사
●일반광고－테레사
●매매, 구인광고－Mrs. 리
☎ : 533－2361

## 해외 걸작 만화

◇남자의 마음

## 한국일보 詩壇

### 公園에서

韓粉順

가슴엔 늘
잎이 쌓이네
그리움이 쌓이네
총총히
띠 두르고
손에 잡히는 記憶
하루내
서성거리며
저무는 사람을 보네.
그렇듯 그욱했어라
문틈을 세날던 바람
한낮 說話로 머문
저 종탑의 이슬이여
감기는
차가움을 털며
마지막 불티를 보네.

중 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CK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

# 밍크 대세일

## ◆◆◆감 사 말 씀◆◆◆

지난 3일간 저희 빅·선물센타에서 가진 바 있는 밍크쇼는 열렬한 교민들의 호응으로 성공리에 끝을 맺게 됐음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더욱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밍크전문가를 모셔 교민의 취향에 맞는 각종 각양의 밍크를 금년 12월5일 (토요일)부터**크리스마스까지** 연기하여 여러분을 다시 모시려고 하오니 이 기간중 언제든지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영 철 올림

**※금년 크리스마스 선물로써는 최상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양질의 모피만을 취급
⊙최저의 가격, 격조높은 품질의 모피
⊙철저한 AFTER SERVICE
(보관과 보험을 1년간 무료봉사함)

# 7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